

東大新聞

김주일이언
김주일이언

비록 경전(經典)을 많이 외우더라도 뜻을 알지 못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한 마디의 법구(法句)라도 뜻을 알고 행하면 도를 얻는다.

반기정 · 송천표 282쪽

1998년(별기 2542년) 2월 16일(월요일) 제 1240호 주간 / 1964.1.1 등록번호 다-10 / 발행인 송석구 / 편집인 겸 주간 정태성 / 부주간 고장택 / 편집국장 이익성 / 편집장 김기영 /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02)260-3491 ~ 2 FAX (02)279-1270 /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0561)770-2057

IMF한파 취업저조 속 졸업

'97학년도 학위수여식 서울 16일 · 경주 20일 개최

취업률 저조로 가라앉은 분위기 ... 양캠퍼스 신은지양 · 김수경양 수석

서울 캠퍼스

'97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오늘(16일) 오전 10시 30분에 중강당에서 열렸다.

오석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 황명수 총동창회장, 교직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64명, 석사 1백 95명, 불교대학원 석사 10명, 행정대학원 석사 43명, 경영대학원 석사 27명, 교육대학원 석사 58명,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14명, 산업기술 환경대학원 석사 18명,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7명, 학사 2천 1백 15명으로 총 2천 7백 13명이 학위를 받는다.

학사 전체수석은 1백 40화점 취득, 평점평균 4.37로 7학기 조 기졸업하는 신은지(정의 4)양

경주 캠퍼스

'97학년도 경주캠퍼스 학위수여식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분무관에서 열린다.

학위 수여식은 △삼귀의례 △학사보고-△학위수여 △상장 및 상패 수여 △이사장 총장 차사 △총동창회장 축사 △폐회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오석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 김병기 부총장을 비롯해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상은 이사장상 1명을 비롯해 총장상 13명, 이밖에 총동창회장상과 총무원장상 등이 수여된다.

학위수여와 관련해 경주캠퍼스 전체 수석은 평점평균 4.36을 얻은 불교문화대 김수경(불교아

동대양이 차지했고, 전체차석은 평균평점 4.19를 얻은 이부대 황현주(관광경영4)양이 각각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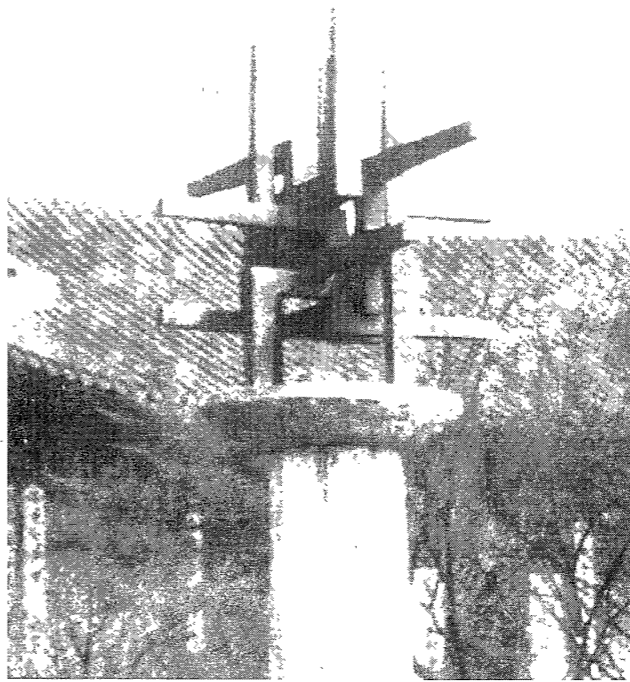
각 단과대 수석 졸업자를 보면 △불문대=김나영(불교아동, 3.93) △인문대=황정원(국사, 4.15) △자연대=홍연주(생화학, 4.18) △법정대=최정희(행정, 4.18) △상경대=강학봉(경제, 4.11) △한의대=김홍숙(한의, 3.93) △의대=이창곤(의, 4.06) △이부대=김운성(법, 4.08) 등이다.

이날 학위 수여식을 준비한 총무과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졸업을 하게 돼 씁쓸한 감이 있지만 졸업생들의 앞날에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체 차석은 4.27을 받은 박경준(무역4)군이 차지했다.

단과대별 수석 졸업자는 다음과 같다. △불교대=김효선(불교, 4.19) △문과대=임향숙(국어특문, 4.21) △이과대=하성민(화, 3.91) △법과대=김대용(법, 3.91) △사과대=조승래(경영, 4.12) △경상대=윤정훈(정보관리, 4.14) △생자대=이진욱(응생, 4.15) △공과대=박범준(전자공, 4.21) △사법대=김원규(체교, 4.20) △예술대=송성찬(미술, 3.91) △야간강좌=최경민(복합, 4.04)

총무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졸업식과 관련, "여년에 비해 취업률이 상당히 낮아 졸업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태"라며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생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필가? ... 코끼리상이 있던 자리에 지난 10일부터 새로운 조형물이 올라 있다. 이 물체는 미술학과 조승환 교수가 현대적 감각에 맞춰 제작한 동국의 상징으로, 근자 4개를 4면에 배치시킨 청동 조형물이다. 사진부

편입생 1천 2백 52명 선발

서울 영문 86:1 경주 의예 28:1 최고경쟁률

학사편입 소폭 증가 추세

'98학년도 1학기 편입학 전형이 지난달 마감돼 총 1천 2백 52명이 본교에 편입한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지난 1월 25일 마감된 '98학년도 1학기 편입학 지원 결과 총 7백 84명 모집에 6천 8백 62명이 지원해 8.7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전형에서 일반 편입에는 2학년 1백 69명, 3학년 1백 51명, 학사편입에는 1백 44명

이, 군위학 편입에는 13명이 각각 선발됐다.

이번 편입학 경쟁률은 일반편입의 경우 2학년이 지난해 25.3:1과 비교해 25.9:1, 3학년이 14.67:1과 비교해 14.4: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편입학 경쟁률은 1.93:1에서 2.2:1로 약간 높아졌다.

한편 영어영문학과는 2학년 일반편입 2명 모집에 1백 72명이 지원해 86: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주캠퍼스의 경우, '98학년도 편입학 전형을 지난달 26일 마감한 결과 모집인원 4백 68명 가운데 9백 70명의 지원자가 접수해 전체 2.07: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의예과의 경우 학사편입 모집정원 5명에 1백 41명이 지원해 28: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편입은 2학년 모집 정원 2백명, 3학년은 1백 69명을 학사편입은 99명을 모집했다. 이번 학년도 경쟁률을 보면 일반편입은 2학년이 지난해 4.89:1에서 2.71:1, 3학년이 4.56:1에서 2.22:1로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으나, 학사편입은 1.31:1에서 1.59:1을 보여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98학년도 1학기 편입학 전형에 대해 한 관계자는 "최종등록 결과를 마쳐야 구체적인 등록률과 입시결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비수주 80억 돌파

'공학용 가상실습 연구중점 연구과제로 선정

연구교류처(처장=박기덕·수학)는 본교가 연구비수주실적부문에서 예년에 비해 수주 과제수와 수주액이 약 40%의 증가를 보여 교육부와 한국과학재단에서 연구비관리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97학년도 연구지원업무내용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본교는 연구비수주실적이 80억원을 돌파했으며, 이는 전국 20위권에 드는 규모이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97 대학부설연구소 지원사업에 본교 산업기술연구원(원장=이문보·건축공학)의 '공학용 가상실습실습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가 중점연구과제로 선정되어 향후 3년동안 3억 1천 8백 5십만원의 지원, 부설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불황 속 동국발전기금 한창

미주 동문회 1만3천9백달러 기탁

'동국대학교 발전기금 연찬회'가 본교 송석구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북미주 동문회(회장=이태근·정치58졸)주최로 지난 6일 LA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동문들이 본교 발전기금으로 총 1만3천9백달러를 기탁했다.

기탁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욕 동문회 배시영 회장 \$5,000 △뉴욕 동문회 동문일동 \$3,000 △밴쿠버 동문회 박두일 회장 \$500 △샌프란시스코 진원섭님 \$400 △토론토 동문회 \$5,000

한편, 1백주년 기념사업회(회장=송석구·철학) 사업본부의 명예위원인 카이치(문화예술대

보리소

떠나는 이들에게

정병조 (문과대 인문학부 교수)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기 마련이다. 만나면 떠나야 하고, 태어났던 죽어야 한다. 금년에는 어김없이 신입생들이 선발되었고 졸업생들은 우리 학교를 떠나 간다. 그러나 만남보다 우리의 배우는 일에 많이 있을까. 이제 졸업생들은 또다른 미지의 세계로 진입하고 있을 때이다. 흔히 사회를 각박하다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내능력의 시험장인 셈이다. 경쟁과 좌절, 성취와 환희 등이 교차하면서 서서히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아마 동국과 불교라는 이미지는 평생토록 졸업생들의 삶을 관통하리라 생각한다. 국적을 바꿀수는 있지만 모교를 바꿀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가꿀수도 있지만 약언으로 얼룩지게 할 수도 있다. 졸업생들에게는 그동안의 전공에 대한 지식보다도 불교적 체취가 더욱 소중하리라 생각한다. 불교가 가르치려 했던 점은 맹목적 신앙이나 진리성 강요가 아니었다. 오히려 인간관계 사느 길, 본래의 내모습을 회복하려는 간곡한 호소였다. 이제 그 불교적 향기를 중생계 속으로 은은히 펼쳐 나가야 한다.

'유마경'이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그곳에는 향적이라는 이상적 세계가 등장한다. 죄도 없고, 불도 없으며, 죽음과 이별도 없는 말 그대로 불국토이다.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은 그 향적나라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었고, 그곳에 왕성하고자 한다. 우리가 가야할 곳은 정토가 아니라 사바세계이다. 못나고, 부족하고, 다수는 이세계를 바랄지라도 가꾸어야 할 책무가 바로 우리가 개척해야 할 시험무대인 셈이다. 이제 중생이 아프리카 내가 아프리카는 유마경사의 깊은 뜻이 이해된다. 새로운 출발을 두려워 말라. 불확실한 미래를 번민도 하지 말라. 끝없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끝없는 도전을 실현할 무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 아닌가. 그 험한 첫 발에 불음이 있기를 기원한다. 동약은 언제나처럼 불음이 우뚝서서 졸업생들을 지키는 영원한 고향이리라.

'정년퇴임식' 17일 총장실에서

김영태 교수와 8명

오는 28일 퇴임하는 교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98년도 1학기 정년퇴임식이 17일 오전 11시 30분에 총장실에서 실시된다.

이번 행사는 총장과의 면담, 공로패 전달, 공로 치하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정년퇴임을 하는 교직원들은 △불교대학 불교학부

김영태 교수 △불교대학 불교학부 이지관 교수 △문과대학 인문학부 강재훈 교수 △법과대학 법학과 이순용 교수 △경상대학 회계학부 윤종만 교수 △공과대학 전자·전기 공학부 정재명 교수 △공과대학 건축·토목 공학부 김생빈 교수 △상경대학 경상학부 김사태 교수 △관리처 관재과 서영배씨 등 이상 총 8명이다.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동국발전기금 기부자 현황 (98.1.1-2.13)

- * 동문
 - 인문인 동문회(회장 정운경, 중앙일보회) 1천만원
 - 김용길(동방서울라이프) 200만원(합220만원)
 - 국민은행동문회(회장정재우,성동지점장) 900만원
 - 변종호(행정대학원) 700만원(합1,620만원)
 - 박두일(정치외교학과,반주동문회) 300만원
 - 이영호(전원) (승가8졸,캘리포니아) 300
- * 불교계
 - 일명회 1백만원, 함형문 1백만원, 석사사 10만원, 윤길복 40만원, 정현숙 10만원, 이등은 60만원
- * 교직원
 - 조재호(의료원장) 1백만원(합1천720만원)
 - 인재형(지대총무과장) 200만원(합866,366원)
 - 박종권(산악기술휘경대학원) 100만원(합966,366원)
- * 대학원
 - ▲불교대학원
 - 서현중(전원) 500만원, 김기순 300만원, 김종형(농회) 300만원, 김학수(명운) 300만원, 박민규(삼계) 300만원, 최중수 300만원, 인경자(지행) 100만원, 오점순(도경) 100만원, 박선호 50만원, 김선희(대동) 200만원, 김경기 100만원
 - ▲행정대학원
 - 김성호 200만원(합1200만원)
 - ▲경영대학원
 - 47기학생회(회장 함형문) 300만원, 이영희 300만원
 - * 기업,재단
 - 현대소프트(대표 안영경) 1억원, 한국RF 1천만원
 - * 학부생,정혜련(선학3) 200만원(합1200만원)
 - * 일반인,기타
 - 태진희 200만원
 - * 동국사랑기금(총기금-누계) (86.12-현재, 43,228,310)
 - 김경재(생명자원과학대학장) 27,100원
 - 김정대(대학원) 40,220원(합94,800원)
 - 인재형(지대총무과장) 20,800원(합115,600원)
 - 이성렬(대학원박사) 100원 50,700원
 - 정병조(부총장) 28,200원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

동대신문 기획광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을 성실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한 시인은 외쳤습니다.

새로운 시작 '흔들리지 않는 영혼'으로 힘차게 정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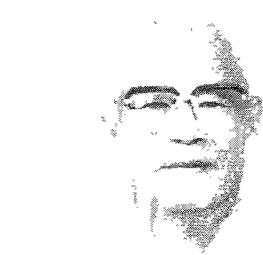
졸업을 축하합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동대신문 사

축사 '97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치사

힘난한 현실사회로의 힘찬 첫발 대망을 갖고 국난극복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졸업을 중심으로 축하합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학창시절은 시련과 격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이래 개혁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국제화, 개방화를 추구해 왔지만 그러나 최근 예기치 못했던 IMF한파와 더불어 우리에게 밀어닥친 경제적 위기는 우리 국민 자신은 물론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으며 그 여파는 앞으로 상당기간 국민전체의 고통분담이라는 명제와 함께 우리에게 많은 파란과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5대 대통령의 취임 및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눈앞에 닥친 21세기를 주의깊게 응시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시련과 난국을 어떻게 타개하고 국가적, 민족적 좌표와 활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졸업생 여러분들은 이런 정치적, 사회적 격동기에 정든 교정을 떠나서 현실사회로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그러나 힘난한 시련의 마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사회의 어떠한 시련과 난관일지라도 여러

분 스스로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자질이 잠재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연마한 인격과 값진 학문적 성과로 역량이 있는 지성인이 된 여러분은 현실사회의 어떠한 역경도 지혜롭고 용기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여러분의 모교 동국대학교는 이제 개교 92주년의 장구한 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국발전을 위한 기금이 약 3백억원에 이를 정도의 큰 성과를 이룩한 것은 불교계 및 전동국인의 헌신적인 동참과 성원에 힘입은 바 크며 아울러 동국대학교는 시대적 추세인 교육개혁에도 2년 연속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는가 하면, 일산의 불교종합병원 건립 등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등 중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미 졸업한 15만 동국인들은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 재계, 학계, 문화계뿐 아니라 법조계, 연예계에 이르기까지 졸업생 여러분들은 동국의 전통과 영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선배들이 이룩한 전통과 업적을 계승하여 보람찬 미래를 열어갈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제 본인은 여러분들의 은사, 그리고 학부모임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뜻을 드리고자 합니다. 열성을 다해 주신 교수님들의 고교가 없었으면 결코 오늘의 영광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며, 학부모임을 통한 학업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보은을

이루어야 합니다. 옷깃을 스치는 인연도 소중할진대 여러분의 오늘이 있게 되기까지 애써준 갖가지 인연들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아는 참 지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불교적 인격도야를 견하여념으로 공부한 졸업생 여러분들은 사회 어느 분야로 진출하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이 사회의 귀감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기심과 물욕의 공해가 뿜어대는 매연으로 어둡기만 합니다. 그리고 물질만능의 부도덕한 현실은 탐·진·치 삼독으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일수록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과 사회정화를 위한 불성의 향기와 여래의 참된 가르침이 단비처럼 아쉬운 때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자고로 국난과 위기에 지혜롭게 대처한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경제적 위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자각'을 통하여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길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대망을 갖고 허욕과 집착을 삼가해야 할 것이며 현실에 최선을 다하되 꿈과 이상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들이 펼쳐지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부처님의 크신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거듭 기원하면서 이만 졸업의 치사를 가뭇하고자 합니다.

오 녹원 이사장

21세기 새시대를 열어갈 졸업생 국가재건을 위한 이미지 쇄신 필요



충실한 학업을 부단하게 연마하고 이제 졸업의 영광을 맞이한 졸업생 여러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졸업생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의 몫을 양면으로 정성을 다해 이끌어주신 학부모임들과 교수님들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한 국가의 미래를 예견하는 가장 적절한 지표는 그 나라가 어떤 청년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교육임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의미심장한 명제에 입각하여 우리 동국대학교는 개교한 이래 90주년을 넘기고 동국 1백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날까지 집간도 그 소망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바야흐로 새로운 21세기를 열어 나갈 문턱에 서서 새 시대를 여는 시대를 이 시점에서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자질과 역량을 두루 구비한 동국인을 우리사회에 내보내게 되는 의의는 참으로 큼니다. 이는 그 동안 우리 동국인 국가 사회 각계에 배출한 영광스런 동국인들의 활약상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길에는 영광과 축복만이

넘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재도약과 용비의 문턱에서 세찬 파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로지 근면과 지혜로 일구어온 우리 사회의 총체적 역량이 위기에 마주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전당, 선의 전당, 미의 전당인 이 대학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고 보호해 줄 울타리가 없는 사회라는 격랑의 현실 세계로 떠나 보내는 우리들의 가슴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그 누구의 책임이라고 전가하기엔 우리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이 시대의 IMF 위기유기는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위에도 백개이상의 기업체가 문을 닫고, 곧 이어 실업인구가 백만 명이 넘는다는 보도는 우리들을 어처구니 없는 비관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가르쳤던 상아탑의 이론이 정당했는지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학은 진·선·미를 모두 갖춘 자유의 성역입니다. 누가 무어라 해도 이상의 보고입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은 선을 지향하는 꿈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유는 자유정신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자유경쟁은 자유의 본질인 일정한 '불'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게임은 틀을 무시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제까지 이러한 게임의 틀을 무시했습니다. 정경유착이다, 재벌위주이다, 노조의 파업이다. 이것은 모두가 정상적인 틀을 거역해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새로운 결의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누구를 원망해서는 건설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경제적 위기를

이기기 위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 모라토리움(MORATORIUM)의 위기로 자책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미지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이미지개선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가의 이미지 쇄신, 개인은 개인의 이미지 쇄신을 통해 6.25의 참담한 비극을 이기고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을 건설했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그러한 근면하고 희망찬 민족이라는 증거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유혹되고, 좌절하고, 원망, 비난, 증오는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 대학의 졸업생이라는 이미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불교적 세계관인 모든 것을 부처로 보는 의식의 전환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신비에 의해 비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현실을 창조한다는 신념을 갖고 여러분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저 망망대해에 보내면서 '도전하라, 비굴하지 말라, 끝까지 파고들어라,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말할 때 다른 실재를 보여주지 못함을 안타까워 할 뿐입니다. 이제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합시다. 어려운 현실은 우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요, 위기는 기회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라고 갈릴레오가 말했듯이, 우리는 한국인으로 살아야 하고 민족정기의 정체성을 가진 유일한 동방의 등불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석구 총장

소나기

IMF시대의 졸업

△오늘은 학생, 졸업하면 백수.
△초등학교 졸업식장:설레임, 중학교 졸업식장:담담, 고등학교 졸업식장:해방, 대학교 졸업식장:절망.
△졸:졸지에 다가는 시련의 업:업보.
△애 하릴 이때 졸업이야!
△졸업은 새로운 시작.
△학정 F, 한두개 없는 사람 없지??? 그렇다고 졸업 못하는 건 아니 함!
△한과속에 졸업! 졸업 동기를 졸업식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
△막상 현실로 다가는 IMF한파, 일자라는 간대 없고 남는건 실직자 명패라나...
△실업수당도 있는데 졸업수당은 안 줘요!
△수천만원 뿌려놓고 남는건 졸업장

한 장.
△7년간의 대학입기 정작 다닌건 2년 이라도 될까.
△내인생 돌리도~
△8학기 학점은 F, 연에는 A로 줘요.
△졸업도 가상졸업으로.
△졸업하면 뭘해, 어차피 내일이면 도서관에서 불결.
△졸업 축하한다고 차마 말 못하겠다.
△졸업식날 사팔에서 상경한 노부부 알 "우리 아들 어데갔노?"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이 비사 꽃도 살 수 없다.
△졸:졸고 또 졸고 결국엔 업:업어줄 사람 하나 없다.
△아! 98학번을 못보고 졸업하니 아쉽다.
△졸업의 끝은 어디인가요? -6년째 대학 다니는 학생.
△입학학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졸업이라니 인생무상 같길막막...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TEL: 2603491-2
/(0561)7702057-8
FAX: 2791270
PC ID: dgpress

대학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시대변화의 주도 대학이 앞장서길 기대

차기정권은 현 국가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모든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를 넘기는 것만으로 차기 정권의 임무가 다하는 건 아니다.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설계도(?)를 그리고 철학하게 짚어나가는 것이 세계화, 개방화 시대의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위기 대처 능력보다는 근본적인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추진은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중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는 모토가 가장 중요하다. 대학이아닐로 국가의 중추부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사람을 어떻게 길러내느냐와 대학에서 어떤 지식을 배우는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에서도, 테크노파크나 해서 산학연과 협동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 것 외엔 안다. 그리고 벤처 기업을 위한 정책들도 만들어 낸 것을 안다. 그러나 벤처 기업의 운영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공과대학을 미천사람이 벤처기업운영 역량과 동기가 충분히 주어질 때만이 가능하지 정책적인 외과 환경만을 바꾼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벤처 기업의 성공은 바로 대학의 혁신이 전제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대학문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패 조사부터 해본 후 그곳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심사숙고와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예산이다. 예산에 있어서는 고등교육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국가 재정 뿐 만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사회적인 지지 분위기와 대학의 자체 재정 자립을 위한 경영마인드 제고와 사업전개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부분 재량권과 자율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실제 대학의 연구, 학사, 시스템 내의 동기 부여와 평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특히 수업이나, 평가 등에서는 발상의 유연성이 있어야 하겠다. 지난 50년간의 관행에 대해서 제로 베이스부터 검토하려면, 특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특히 수업법식과 타성적이고 배타적인 교수사회나 학사행정업무도 개방적이고 능력과 능력 분위로 바뀌고 강력한 유인책과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 연구 동기 부여이다. 벤처기업의 창업도 창조적인 학생들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제는 바뀌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변화의 주도를 대학에서 떠맡길 기대해 본다.

남재현 (사과대 사과과학교육)



동악광장
공부 좀 열심히 해라. -행동대장
△2월16일은 28대 부총회장님의 출소일입니다. 차디찬 감방에서 열심히 투쟁하시다 우리곁에 돌아오시는 형의 출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94묘의 총무 현
수고하셨습니다
△봉사동아리 ELF 27기 여러분 IT 준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1년동안 더욱더 나은 모습 보여주세요. -B.G
△12일 밤을 새며 열심히 일했던 막강 39기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졸준위 여러분 정말 한 해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졸업생 중 한명
알립니다
△2월20일은 속초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간다고 합니다. 선배로서 귀여운 98학번들에게 조금만만 도움이라도 주실 분을 주저하지 마시고 갑시다. 선배 모범따라 저를버다 보러갑시다. -OT맨
△2월16일은 졸업식, 갖은다나 취업안된 선배들에게 꽃헌송이 건네줍니다. △노사정 합의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피말똥 먹고 사는 노동자들을 다시 한번쯤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오늘도 연병장을 돌고 있을 96학번 영문과 동기들아! 건강 조심하고 멋진 남자로 다시 태어나서 와라. -영문과 MISS
△일문과 승미아! 난 널 사랑한다. 너와의 만남을 기대할게. -블랙남자B7

알립니다
△새터 준비하시라노고 고생하시는 학생회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멋진 어울림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합시다. △방중에도 자료 수집한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정보센터 후배님들 앞으로 더 힘내서 행방한 관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합시다! -후배를공격하 생각하는 이가
△IMF한파로 아직 취직을 못하고 있는 제언아! 우리 너무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도서관을 안방화 시키는 일을

맡습니다. 모두 모두 축하해 줘시다.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화려한 싱글
△2월 20일의 경목이거 세상을 구경한 날입니다. 오빠가 너무나너 축하하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졸업은 또다른 시작입니다. -불취 선배님들 지금까지 학업에 매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맹이
△방중에서 웃웃이 학생회관을 지키신 수우 아저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학기부터는 24시간 개방이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갈 곳 없는 이가
열심히 합시다
△새터 준비하시라노고 고생하시는 학생회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멋진 어울림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합시다. △방중에도 자료 수집한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정보센터 후배님들 앞으로 더 힘내서 행방한 관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합시다! -후배를공격하 생각하는 이가
△IMF한파로 아직 취직을 못하고 있는 제언아! 우리 너무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도서관을 안방화 시키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자! -영원한 우정으로부터
알립니다
△개강을 하면 식비가 또 오른다고 합니다. 온방울 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 단식투쟁을 벌립시다. -義
△관공과 재학생배가 제대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몸 조심 합시다. -신분을 뽐낼 수 없는 이가
△김시배 교수님이 정든 교정을 뒤로 하고 퇴임을 하십니다. 경제학과 학우 여러분 교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합시다. -경제학과의 비탈들이
그리고...
△경상학부 새내기 배움터 무사히 아무탈 없이 보내길. -기 학부생
△동보아! 아무조록 2년 2개월 무사히 군복무 마칠길 바란다. -진정한 친구가 되고픈 이
△수직누나 몸 건강하시구. 빨리 퇴원하시길 바래요
△선회야! 선배님 잘 돼 가나? 바쁘더라도 연락좀 하고 살자! -나 누군지 알지
△수영아, 너 휴학한다는 얘길 들었다. 휴학하더라도 학교에는 자주 들렸으면 좋겠다. -정인 선배가

다행만 학생 식당 차림표	
월	부대찌개(1300) (조식)
화	오징어까스(1300)(조식)
수	돈육찌개(1200)
목	불고기백반(1500)
금	설렁탕(1300)
토	오징어볶음(1300)
일	갈비탕(1300)
월	김치볶음밥(1200)
화	소고기국밥(1300)
수	조기구이(1300)
목	원정찌개(1200)
(단위:원)	
동국관 교직원·학생식당 차림표	
월	두부김치(2800) (조식)
화	연두부찌개(1200) (조식)
수	닭가슴살(3000)
목	잡채밥(1300)
금	찰면류음(2800)
토	편육(1,300)
일	우동전골(2,800)
월	소고기볶음밥(1500)
화	햄버스터이키(3,400)
수	김치찌개(1500)
(단위:원)	

차기정부의 난관

시사논단

김대통령당선자의 개혁적인 정책불구 기득권 세력에 의한 국가위기

재벌개혁 통해 정치개혁풍토 조성하고 노동력 강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내용이 그렇게 획기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회창 후보에 비해서는 개혁성이 돋보였다. 반면에 이인제 후보는 개혁적인 공약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조직력과 즉흥적인 후보 진출로 인해 공약의 일관성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후보는 자유민주연합과 내각제를 매개로 한 조직적인 연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보수적 인맥을 가진 지인연과의 연대, 개혁적인 공약은 김영삼 대통령이 진술하던 1992년 대통령 선거와 대비된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자당의 보수 조직과 공약을 그대로 안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즉 대통령 임기 초기에 개혁세력과 미비한 상태에서 선거 당시의 공약을 무시하고 개혁 정책을 시도함으로써 결국 기득권세력에 의해 개혁이 저지됨은 물론 1997년 12월에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체제로 들어서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시도한 개혁은 여전히 김대중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 그 내용에 있어서 일맥상통한다. 다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를 지배해온 군부세력과 민주자유당 내부의 민정계 등의 수구세력의 청산에 실패하고, 새로운 개혁세력의 형성에 시간을 소모함으로써 어려움을 겪었다. 김대중 정부는 상대적으로 군부개혁과 개혁주도세력의 형성에는 김영삼 정부보다는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김대중 정부가 선거에서 제시한 개혁의 프로그램이 쉽게 정착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미 국제통화기금의 총재인 칸다쉬 총재가 지난 2월7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재개발 24개국 회의에서 지적하였듯이, 한국의 어려움은 관행이 지속되고, 또한 나중에 실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개혁은 실패할 것이다. 즉 미국은 4조달러의 부채를 지니고 있지만 외채위기가 닥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1천7백억달러의 외채로 위기가 발생했다는 믿을 수가 없다는 점에 있다. 현재에도 재벌들은 주주회사의 허용을 주장하면서, 상호지급보증의 완화, 결합제

무제표의 작성, 기업간 상호 출자제한 등 개혁 프로그램에 저항하고 있다. 즉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의 지적은 명백하다. 즉 기업의 말을 믿을 수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시제도의 강화, 경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정보 공개, 사회이사제 도입,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 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 보장, 결합채무제도의 도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자유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윤리라는 입장이다. 거짓말을 하는 기업의 말을 어떻게 믿으며, 그들과 어떻게 신용거래가 가능하며, 나아가 공중 사업은 더더욱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미 1987년 민주화투쟁후에 탄생된 노태우 정권에서도 특히 1990년 2월이전 여소야대의 국회시절에는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며, 이후에도 김영삼 정부에서도 추진되었으나 재벌들의 강력한 반발로 후퇴되었던 것이다. 이제 다시 국제통화기금 체제 아래에서 기업 경영의 민주화가 논의되고 있으나, 기업들은 뒤로 미루자고 핑계를 대고 있다. 기업경영이



이은진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민주화되지 않으면, 내부자 거래를 막을 수 없으며, 과도한 차입금을 줄이기 어렵고, 지나친 기부금과 같은 준부금과 같은 준조세 문제, 적대비용의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되기 어렵다. 재벌개혁의 부진은 결국, 한나라당이 교원노조, 노조의 정치활동, 공무원 단결권 등을 발기로 삼아 개혁입법을 국회내에서 통과시키는 데 반대하고 있는 데에서 드러난다. 정부부처의 규제권 완화, 정부신하기구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규제, 공무원에 대한 작권 면직 등도 결국 재벌개혁이 실패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이제 재벌 개혁을 통하여 정치권 내에 개혁세력이 발을 붙일 수 있는 정치풍토 조성, 작고 강한 정부를 만드는 작업, 노동의 기본권이 존중되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을 만들어 내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사설

취업률 제고를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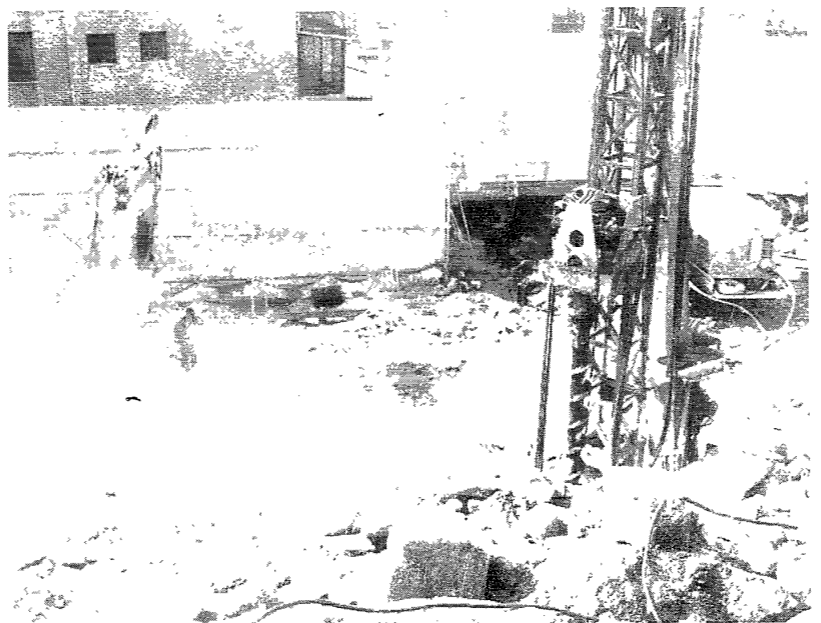
취업을 맞이하는 모든 이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그간 어려운 일도 또 보람찬 일도 많았겠지만 이제 학창생활은 지나갔으며, 싫든 좋든 새로운 생활을 개척해 나가야만 한다.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자랑스러운 졸업생들에게 그 앞날을 축여 줄 때, 그보다도 오히려 격정스러운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작금의 경제 위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사회 첫걸음을부터 좌절감을 맛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때에 학교 구성원 모두는 그들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 남아있는 모든 이들은 어떻게 앞날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깊이 그리고 냉철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졸업생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으로써, 그들의 취업 재수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 굳이 IMF 사태가 아니라도 오래전부터 졸업생들이 본교의 도서관을 이용하여 취업 준비에 정진해오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들은 평소에도 소외감을 많이 느끼며 위축된 생활을 하고 있다. 제한된

지원과 공간 속에서 그들을 위한 충분한 배려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성의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따뜻함을 느끼고 더욱 분발할 수 있을 것이다. 지혜를 모아보자. 한편 재학생들은 당장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곧 낙차를 스스로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좀 더 분주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재학생 각자의 노력을 촉구하는 것보다도 더욱 시급한 일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면학분위기를 거거고으로 조성하는 일이다. 이를위해서 학교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만 한다. 필요하다면 전 교육과정은 새로 편성해야 하며, 수업과 행정서비스가 여기에 최우선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도 많은 구조조정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되며 신속하게 실천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지금 백화간에서 서 있다. 비상한 각오 없이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없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인식을 같이 하고 힘을 합칠 때, 부처님의 가르치는 더욱 확실히 나타날 것이다.

서울대 교수임용비리 사건의 교훈

지난 11월 서울대 치대의 교수임용 비리가 폭로되면서 파생한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대 뿐만이 아닌 전국 대학의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본교는 오랜기간에 걸친 선배들의 부당한 요구와 학교·교수들의 자정노력으로 인사행정의 폐쇄성 타파에 앞장섰으며 그 결과 얻어낸 높은 투명성과 공정성은 한국대학의 교원임용에 전범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서울대 교원임용비리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더욱 완벽한 교원임용체제를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매년 사립대 뿐만 아니라 국립대에서도 교원임용을 둘러싸고 생기는 잡음은 끊이지 않았으며 시비의 형태또한 다양했다. '교수공정임용을 위한 모임'에서 분류한 불공정 임용 유형을 살펴보면 총·학장·이사회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생회 또한 단위의 의견조정을 통한 공정한 임용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한 학교당국과의 사전 논의를 거쳐 효율적인 공개배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행정 자체를 공개하는 일이며 문제 해결의 핵심주체인 교수들이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따라서 교원임용 시 해당 학과의 교수와 학생들에게 응모자를 공개하고 기준안을 제시해 학과 교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교수들간의 파벌이나 대립을 방지하기 위해 교수 개인의 심사결과와 선발경위를 공개하여 선발에 참여한 모든 교수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공평성은 햇빛을 비춰야 사라진다고 한다. 교수임용시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학과의 결정을 높이고 담합이나 자기사람하기 등의 비리는 학교당국이 견제하고 조정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 즉 교수임용의 권한 자체를 특정한 집단이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학당국·교수·학생 등 각 주체간에 상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렇게 임용의 절차와 방법이 공개되어야만 제반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보는 눈이 많아야 비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해야 할 때이다.



사진은 정보매체센터 공사 현장의 모습

감색들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본교를 비롯한 국내의 상위권대학을 또한 수년전부터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시기 학내공사는 제한된 공간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중앙도서관 및 각 단과대 열람실의 좌석부족을 지적할 수 있었지만 교육환경 개선의 큰 틀에 놓고 보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룸비니관, 만해평장내 농구

장과 BSC(Business Solution Center) 등 여러 공사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점은 학과에서 학생들의 의견수렴과정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생회 또한 단위의 의견조정을 통한 공정한 임용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한 학교당국과의 사전 논의를 거쳐 효율적인 공개배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간배치의 효율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공사 진행

공간배치...설계단계에서 학생 의견 반영돼야

학내 곳곳에서 새학기를 준비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학교당국은 지난 겨울방학을 이용, 사범대 학관과 소강당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복지공간확보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공사들은 2년연속 대학교육개혁 최우선대학에 걸맞게 교육환경개선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수렴의 통로가 아직은 미흡해 학생들을 위한 공간임에도 설계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진행되는 공사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정보매체센터 건립이다. 순수공사비만 64억원으로 내년 1월말쯤에 완공될 예정인 정보매체센터는 모두 2개동(A동, B동=가칭)으로 A동은 총면적 1천4백2십7평에 지하2층, 지상3층의 규모로 지어지며 18개의 강의실(세미나실, 실습실 포함)과 역경원 사무실, 종합인원사무실로 사용될 예정이다. B동은 총면적 7백12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설되며 9개의 강의실(세미나실, 실습실 포함)과 15개의 교수연구실이 자리잡게 된다.

정보매체센터가 완공되면 정보산업과학 대학의 학생들은 대부분의 전공강의를 이곳에서 받게됨에도 학생들의 자치공간(가령, 과학생회실)들이 설계도면 작성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정보매체센터의 건립으로 종합인원행정이 상당히 편해질 뿐만 아니라 부족한 강의실이 확보되고, 학교·학생 모두에게 바람직하지만 이와함께 학생자치공간 또한 공간시간에 허투르해, 학회 및 소모임의 활성화 방안으로,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현재 중앙도서관(관장=이호일,독어독문학)에도 1층 열람실의 멀티미디어 실 공사가 한창이다. 멀티미디어실은 인터넷, 위성방송, 비디오, CD-ROM, VOD, 어학테이프등을 이용할 수 있는 총 40석 규모의 열람실이다. 이 공사는 지난 4월 시공해서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쯤이면 공사가 끝나게 되는데 향후 정보화대에 발맞춰 첨단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정보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특출히 할 것이다. 멀티미디어실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기대할 수 없었던 영상실습, 신속한 정보

대학문화 '대학생 독서감상문' 현상 모집. 대학문화신문이 주관하고 (주)영풍문고 후원하는 '대학문화 대학생 독서감상문 현상모집' 행사를 시행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독서지식 고양과 인문학적 교양지식의 습득을 통해 건강한 대학문화를 구현함과 아울러 21세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올곧은 인재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며,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기대 합니다. 응모자격: 전국 대학생 및 예비대학생(98년 고교 졸업자 포함). 응모요령: 가. 대학문화신문과 영풍문고가 추천한 도서중 한권을 임의로 선정하여 독서감상문을 제출한다. 원고분량: 200자원고지 10매내외 (A4용지 1~2매내외). 응모기간: 1998년 2월1일(일)부터 3월 20일(금)까지 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시상내용: 최우수작(1명) ----- 상패 및 상금 1,000,000원. 우수작 (5명) ----- 상패 및 월드컵 1대 (500,000원 상당의 외국어 학습기). 장려상 (20명) ----- 野丁(전 5권) 문학과 지성사 1권. 입선작 (30명) ----- 도서상품권(5천원권) 2매. * 독서감상문 현상공모 응모자 전원에게는 '대학문화신문' 1년 정기구독의 혜택을 드립니다. 응모기간 및 제출처: 가. 응모기간: 1998년 2월1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나. 제출처: (110-350)서울시 종로구 은니동 98-78 가든타워빌딩 10층 대학문화신문사 기획실 독서감상문 담당자. 제출방법: 우편접수는 당일소인까지 유효함. 통신판으로 접수 - 유니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ID: UCPress. 라. 문의처: 전화 762-1366/741-1661 팩스 762-1749. '유니텔 캠퍼스 21' 온라인대학신문 '대학문화신문' 파워이벤트(go.unipress). 발표 및 시상: 가. 발표: 1998년 4월9일 (대학문화신문 지면 및 개별통지). 나. 시상: 개별통지를 통해 통보함. 심사위원: 국문과 교수 또는 지명 문학가. 응모시 유의사항: 가. 독서감상문 대상도서는 본면에 소개된 도서에 한하며, 원고 말미에 독서감상문 대상서적의 이름, 저자나 역자성명, 출판사명 그리고 응모자의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명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02)762-13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후원: 영풍문고 UNIPRESS. 대학문화신문. 서울시종로구은니동98-78, 가든타워빌딩10F(110-350) 전화: 741-1661 / 팩스: 744-8973. 추천도서: 2020년, 일본이 사라진다, IMF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남한강(전3권), 내가 내가 되는 책, 다시찾은 우리역사,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레드바이러스, 매아리, 불날(전5권), 사람은 남자를 아름답게 한다, 소설 노자, 소피의 세계(전3권), 실마릴리온, 아우토반에 뿌린 눈물, 아하! 그말이 그뜻이었구나!, 어릿광대의 나라 한국, 여간간지의 영화교실, 옛살림 옛문화 이야기, 왕과 건달(전3권), 우리말은..., 위대한 발굴/위대한 탐험/위대한 도전, 지계의 연인, 한빛미디어 아이비스, 소담출판사, 국일미디어, 경세원, 문예출판사, 도서출판 거목, 소담출판사, 문학과 지성사, 범우사, 법인문화사, 현암사, 다솜미디어, 연암프레스, 새문출판사, 화담출판사, 대경출판, 대경출판, 화담출판사, 백년도서, 가람기획, 세계의 여성들, 일본경제신문사, IMF연구회, 강승원 저음, 테리 콜 휘테커 저음, 한영우 저음, 라인홀드 니버 저음, 박홍신부의 위음, 유리 나기빈 저음, 임철우 저음, 김경숙 저음, 秦南成·劉升元 저음, 요슈타인 가아더 저음, J.R.R. 톨킨 저음, 박영훈 저음, 권승호 저음, 박정진 저음, 김동훈 저음, 김동태 저음, 박정진 저음, 전상국 저음, 이병철 편저, 하윤 저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니텔 캠퍼스21 캠퍼스플라자 '일민' 및 대학문화신문(go.unipress) '대학현상공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영풍문고 본·지점에 독서감상문 추천도서 특별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효과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태웅=비교광고에서의 메시지 유형이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장동선=심포지엄 평가에 관한 연구
 △김현준=홍소핑을 통한 제품의 구매선호도 변화에 대한 연구 - 인터넷 홍소핑을 중심으로 -
 △최혁준=한국기업의 물류서비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송지은=한국 수출기업의 신용위험 관리실태에 관한 연구
 △남궁희정=한국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중석=상환변수와 정보특성이 회계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이형근=상해의 주거경관:1843 - 1949
 △유재우=Notes on the Stone - Czech Compacification
 △이주영=인물일화연구 아연셀레늄에서의 깊은 준위 결합에 대한 수소화 연구
 △박승호=MBE로 성장된 Mg doped p-type GaN의 Photoluminescence 연구
 △허유림=MBE법에 의한 GaTe박막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상우=PECVD로 성장된 a-Si(1+x)C:H 박막의 광학적 특성 연구
 △주재우=GaN/AlGaIn양자우물의 광학적 특성
 △진희재=ZnSe/ZnS양자우물의 광학적 특성
 △박혁= Re과 Th중 Heavy Nuclei의 Nuclear Collective Structure에 관한 연구
 △김규식=질량수 100 근처에서의 영역에 있는 핵의 Collective Properties에 관한 연구
 △변성준=분해성 가교결합물 에스터의 합성 및 물성에 대한 pH의 영향에 관한 연구
 △김준현=3' - [125I]Fluoro - 3' - deoxythymidine ([125I]dT)의 정구체 합성 및 불소화반응
 △박용준=은도 pH 감응성 Poly(N-isopropylacrylamide - co - diethylaminoethylmethacrylate)의 상전이에 미치는 Poly(acrylic acid) 영향에 관한 연구
 △김병수=세라미 킬레이트 리간드를 가진 팔라듐(II) - 메톡시이도 착물의 β-수소 이동반응에 대한 연구
 △류상범=팔라듐(II) - 이미리이드 화합물의 합성 및 반응 속도론적 연구
 △신태욱=Photomicrocarynine의 광변화 반응과 열변화 반응에 대한 연구
 △박형진=반발고리작용을 이용한 모질단 칸비올 추출에 관한 연구
 △박찬호=중도질단단 지수분포의 모수추정에서 효율적인 MCEM 알고리즘의 이용
 △정영미=기구 기중치를 이용한 인구조형
 △오윤경=마르코프사프 환기모형 자기상관계수 추정에 관한 연구
 △배이남=EM알고리즘을 이용한 오이벌 분포의 모수와 결측치보 추정
 △성용기=간반류 부식화조건 및 이용성 검토
 △이원주=풍의 생육단계 Lipoxypgenase의 활성점정
 △김병우=A REVISIONAL STUDY OF THE SPIDER FAMILY THERIDIIDAE(SUNDEVALL, 1833)(ARACHNIDA, ARANEAE)FROM KOREA
 △김진홍=Identification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Gagaminine from In Vitro Cultures of Cynanchumwilfordii (Maxim). Hensley
 △정재현=패러구균 fasti 그룹의 클로닝 및 특성
 △이창용=The Optimized Culture Condition for Mycelial Growth and Enzyme Activities of Mycelia in Pheilius linteus.
 △한주재=Corydalis remota 속의 기내배양을 통한 체포배발생 및 수 식물체의 형성
 △정한호=경관 구성원리로서의 중심성을 적용한 현대사실 환경설계 -만분실을 대상으로 -
 △김희규=수교모 사유림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 황성군 둔내면 일대를 대상으로 -
 △민정기=경주시 경관평가에 관한 연구 -인지적, 감정적, 선호도를 중심으로 -
 △하재호=조선산 선암사의 식재경관과 수경관에서 발견되는 예외적 현상에 관한 연구
 △김현수=수도권 RESORT개발에 관한 연구
 △이희택=MIMD 구조에서의 병렬처리 웨이브렛 알고리즘
 △조준민=D-5 VTR 기록을 위한 HDTV 영상신호의 압축 알고리즘
 △박동준=블록단위 영상분할과 프랙탈 영상 부호화
 △은중수=웨이브렛 계수의 국부구체를 이용한 MRI 영상의 잡음제거 기법
 △우석훈=디지털 비디오의 장편 전향 검출 및 압축 영상의 확대와 축소
 △류병범=디지털 컬러 영상의 검색과 MPEG-2 압축된 비디오의 브라우징
 △김하림=웨이브렛 코셋 변환영역의 비선형 합수를 이용한 영상의 잡음 제거기법
 △이윤준=웨이브렛 계수의 Zero-Crossings를 이용한 심전도 신호의 압축기법
 △김정민=인위적인 잡음 피치를 이용한 인공신경성 잡음 제거
 △조정영=AlGaAs/GaAs HBT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연구
 △서정민=디지털 TV 시스템에서의 영상 정보 보호
 △김두용=인버터의 고조파 저감을 위한 능동 제어 방식 - Intelligent Control Method to Reduce Harmonic of Inverter -
 △김진식=교류서보시스템을 위한 혼합저장 제어 방식
 △최광순=신경회로망을 이용한 비선형 시스템의 직접적응제어방식
 △오승현=시뮬레이션의 성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이벤트 리스트
 △서병원=격체 램퍼 기술을 이용한 RPC 프로그램의 활용에 관한 연구
 △박세열=벨기안 클리어트/서버 환경의 효율적인 트랜잭션 처리기법
 △안진우=분산 연산 실시간 시스템에서 공평한 부 태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
 △장상현=압축된 비디오 데이터에서 내용 기반 색인 구성을 위한 할당된 자동 장편 전향 추출 방법
 △정정성=코드 확장 기법을 이용한 Bytecode에서 SPARC code로의 변환
 △조광재=계층적 분류 구조에서의 역카테고리 빈도를 이용한 문서의 자동 분류
 △유희용=효율적인 정보 배치와 개선된 어안 렌즈 알고리즘에 의한 할당된 시각화
 △송미영=민화용 페이지 편집기 개발 및 등장 인물 추적에 관한 인물 영상의 유관성 추출
 △안병우=연속매체 처리를 위한 루에이 버퍼링 전략
 △이호정=분산 시스템에서의 이동 에이전트를 이용한 효율적인 하드웨어 상태 모니터링
 △김정수=분산 환경에서 객체 이동을 고려한 적응적 중복 기법
 △안병선=복잡도 모니터링과 다중 프로파일을 이용한 인텔리전트 웹 에이전트
 △조시원=네트워크 기반 환경에서의 실시간 음성 인식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임상현=CF4 플라즈마중의 전자수송특성 해석
 △송준규=개선된 경관학습을 이용한 음성인식에 관한 연구
 △강호성=자기회로 해석에 의한 영구자석 가동형 LDM의 설계
 △손강성=능동 클램프 방식을 이용한 고효율 이송 포워드 - 폴리아믹 컨버터에 관한 연구
 △송중화=다집진 복토제와 쓰레기의 광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영재=중기양성자선에 따른 콘크리트의 강도 특성 및 동결융해 저항성
 △오윤경=리중 - 저항계수설계법에 의한 강교량 합성 형로의 최적설계프로그램 개발
 △박형용=배수제 필터의 특성과 수평배수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김미영=전단을 받는 Tapered Plate의 탄성단단 파괴강도에 관한 연구
 △이정민=폴리아미노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강도 특성 및 동결융해 저항성에 관한 연구
 △김미영=전단을 받는 Tapered Plate의 탄성단단 파괴강도에 관한 연구
 △이정민=폴리아미노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강도 특성 및 동결융해 저항성에 관한 연구
 △이형환=RFID에 의한 감항성박소교의 최적화 자동설계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김선기=스탑주입을 이용한 토양 내에서의 NAPL제거
 △박병관=순수전단을 받는 광변복판의 극한전단거동에 관한 실험연구
 △윤경환=수공간의 유형과 의미에 관한 연구
 △박상준=노인시설의 건축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노인의 주요구에 대응한 건축방향을 중심으로 -
 △안사중=Crystal Structure of 1-[(2-chlorophenyl) diphenylmethyl]1H-imidazole (Clotriazole), C22H17ClN2 as an Antifungal Agent
 △정용재=기체분리용 Polyimide 중공사막 제조에 관한 연구
 △이석규=바이오텍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식육제품 중의 유험화합물의 가용화도 증진에 관한 연구
 △하진국=다중중생산 회분성 공정에서 저장시간 차이를 고려한 공정운영 모델개발
 △홍주희=오존을 이용한 세차장폐수처리에 관한 연구
 △손우민=기체분리용 중공사막의 Plasma Coating에 관한 연구
 △박재석=멜론 과육에서 얻은 세린 프로테아제의 정제 및 특성
 △김남수=설탕의 사용량과 입자크기에 따른 비소기의 황산분석 및 물성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김지호=유지의 알칼리 이성질화에 의한 Copagated linoleic acid 농축물의 제조
 △정희성=식품의 최대결빙점생성대 분석을 통한 그래의 개발
 △한택수=사료생산용 압출성형기 정장가동의 자동제어
 △김근영=사료생산용 압출성형기 Start-up과 Shut-down의 자동제어
 △박익성=지방산 분석은 -염색법을 이용한 pGEM DNA의 부분 염기서열 분석
 △김성욱=효화전분과 생전분을 효소와 함께 압출성형시 액화작용과 체류시간 분포에 관한 연구
 △문은택=시판 낙농제품중 Conjugated linoleic acid 함량과 요구르트의 가용 및 저장중의 변화
 △구태훈=로봇 미니멀레이터의 역방향 기구학 해결을 위한 신경망 응용
 △김희성=lipfield Network를 이용한 AGV의 동적 작업배정 알고리즘
 △이승수=일반적 흐름생산장치의 동적 일정계획 수립을 위한 신경망의 응용
 △김규철=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인공신경망 입력변수 선정에 관한 연구:신용평가의 적용
 △홍광원=정보 검색에 응용한 K-NN 기법의 학습 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양성욱=실시간 지리정보 추론을 위한 객체지향 접근
 △이수진=식이급여시간과 고지방식이 섭취의 체중 및 혈액성분에 미치는 영향
 △강광범=시상철소년의 가족상에 관한 사례연구
 △이종범=허수미 화술사상에 관한 연구
 △김동욱=심유·격류의 지하차양이 백서의

고지혈증에 미치는 영향
 △김현석=보충제섭취의 유전독성에 관한 연구
 △조현석=심유·격류의 올레산이 백서의 고지혈증에 미치는 영향
 △이지향="경약전사·부인규"가 조산유기 부인문에 미치는 영향 - '외분보강', '외중순의', '방약합편'을 중심으로 -
 △김경선=기미항사육근지방의 Indomethacin 유도 위장막손상에 미치는 항산화효과
 △박석기=조구등의 혈관긴장성 조절 및 그 기전에 관한 연구
 △방인욱=불교의와 의 형성과 한의학에 미친 영향
 대웅전력에 관한 연구
 △김지영=노인성 이음상태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동작구 지역 노인정을 중심으로 -
 △문정선=청소년 학교폭력 피해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 서울·경기지역 중고생을 대상으로 -
 △박경희=직장보육시설의 부모 만족도 향상 방안 - 노동조합주도로 설치된 시설을 중심으로 -
 △정현주=사회복지관 자원동원을 위한 홍보방안 - 후원금 및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
 △이흥태=치매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 치매유형별·정도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
 △박경우=생활보호대상 독거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주자를 중심으로 -
 △임주영=서울특별시 시립병원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능률성과 공익성을 중심으로 -
 △김신영=원거의 중대뇌동맥 폐색후 환원해독탕 투여가 대뇌반구 및 시상 위축에 미치는 영향
 △한경훈=제초제 Bromobenzene에 의한 원거의 간손상에 미치는 영향
 △김영재=태권도선수의 체중감시 신체조성 및 혈청지질 성분변화에 보충제섭취가 미치는 영향
 △정민기="금오" 부인상제가 조선시대 부인문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이원익="벌초기"의 방제학적 특징에 관한 고찰 -상한, 추운을 중심으로 -
 △이원훈=전갈이 마우스 Natural Killer 세포활성에 미치는 영향
 △김영진=삼형백색술산의 Indomethacin 유도 위장막손상에 미치는 항산화효과
 △제정욱=최근 9년간 포항시 사망수준의 변화
 △안재욱=원거 대뇌피질에서 허혈과 재관류시 N-methyl-D-aspartate 수용체 조절자 NR2B를 매개로 한 증감사상 단백질분해
 △한기성=여성 요실금과 대변실금의 유병률에 대한 기초연구
 △김대인=Helicobacter pylori 감염 환자에서 Western blot법에 의한 헬릭스 세로특성 유전자형의 발현에 관한 연구

불교대학원

△왕정운=초기불교의 이상사화관 연구
 △이인주=조선 후기 불교장엄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김나경=교역의 성상학적 사상 연구
 △김종철=임영향기의 고려불교계 통합 연구
 △이현호=지역사회복지센터로서 사찰의 역할에 대한 조사연구
 △노종현=불교인의 사회복지 의식 설문조사에 관한 연구
 △이택진=청소년 복지와 사찰 역할
 △염무성=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실태분석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 - 공공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
 △유재우=유로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김광순=불교자원봉사자의 활성화와 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대학원

△강원순=사교육영역의 관리개선에 관한 연구 - 수요와 공급관리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중심으로 -
 △권관영=개발제한구역이 토지공급에 미치는 영향
 △김정태=한국의 구조적 관료부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영민=경매제도의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전파자원 배분정책에 관한 연구
 △박학준=노사관계의 분구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맹정중=군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
 △최철호=일본의 신안보전략과 한·일 해군 협력에 관한 연구
 △윤상진=일본의 신 방위정책과 한국안보에 관한 연구
 △신승진=한국의 전정지도체제에 관한 연구
 △박학준=주변국과의 대항반도 정책과 한국 안보에 관한 연구
 △송익성=효율적 분류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CALS 연구
 △이봉원=방산업체의 종합군수지원에 관한 연구
 △신승진=효율적 분류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CALS 연구
 △이봉원=방산업체의 종합군수지원에 관한 연구
 △이수출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수출가격과 수출물량변동을 중심으로 -
 △임영길=군인 연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승호=기업합병시 중역에게에 관한 연구
 △최상수=시장개방 부동산 서비스산업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영=군 지휘통솔 교육에 관한 연구
 △정준석=일본의 신방위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연구
 △이정민=신체적 장애의 지휘통솔에 관한 연구
 △이주영=한국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Herzberg의 이론을 중심으로

△김석철=군 사법경찰관과 군검찰관의 직무상 지휘체계에 관한 연구
 △김태형=한국경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조직과 기능을 중심으로 -
 △진준두=육군의 폭력사고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이진형=한국의 국제적법외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홍식=군사법원법상의 군 수사체계에 관한 연구 - 일반형사사법제도의상의 수사체계와 비교하여 -
 △김남익=인질 테러 사건의 효과적 협상을 위한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김지영=노인성 이음상태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동작구 지역 노인정을 중심으로 -
 △문정선=청소년 학교폭력 피해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 서울·경기지역 중고생을 대상으로 -
 △박경희=직장보육시설의 부모 만족도 향상 방안 - 노동조합주도로 설치된 시설을 중심으로 -
 △정현주=사회복지관 자원동원을 위한 홍보방안 - 후원금 및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
 △이흥태=치매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 치매유형별·정도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
 △박경우=생활보호대상 독거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주자를 중심으로 -
 △임주영=서울특별시 시립병원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능률성과 공익성을 중심으로 -
 △김신영=원거의 중대뇌동맥 폐색후 환원해독탕 투여가 대뇌반구 및 시상 위축에 미치는 영향
 △한경훈=제초제 Bromobenzene에 의한 원거의 간손상에 미치는 영향
 △김영재=태권도선수의 체중감시 신체조성 및 혈청지질 성분변화에 보충제섭취가 미치는 영향
 △정민기="금오" 부인상제가 조선시대 부인문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이원익="벌초기"의 방제학적 특징에 관한 고찰 -상한, 추운을 중심으로 -
 △이원훈=전갈이 마우스 Natural Killer 세포활성에 미치는 영향
 △김영진=삼형백색술산의 Indomethacin 유도 위장막손상에 미치는 항산화효과
 △제정욱=최근 9년간 포항시 사망수준의 변화
 △안재욱=원거 대뇌피질에서 허혈과 재관류시 N-methyl-D-aspartate 수용체 조절자 NR2B를 매개로 한 증감사상 단백질분해
 △한기성=여성 요실금과 대변실금의 유병률에 대한 기초연구
 △김대인=Helicobacter pylori 감염 환자에서 Western blot법에 의한 헬릭스 세로특성 유전자형의 발현에 관한 연구

경영대학원

△김선미=WTO체제하의 한국영상산업 진흥 방안
 △이현영=선물시장 규제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주기주수 선물시장을 중심으로 -
 △이은재=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형성과 한국기업의 진출방향에 관한 연구
 △이갈용=직업근로의 전역시 고용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기=우수 중소기업설계 중시원의 이직을 감소 방안에 대한 실증적 연구
 △유희수=연봉제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권순철=리더십 유형과 종업원의 직무만족 - 중소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
 △노희영=조직 커뮤니케이션과 조직문화에 관한 연구
 △김기원=국내은행의 인사고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H은행을 중심으로)
 △이종범=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설비배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허남익=국내 은행상품·서비스의 유통경로 전략에 관한 연구
 △김재현=은행의 신상품개발에 관한 연구 - 금융자유화에 따른 사례분석 및 의의조사를 중심으로 -
 △백동현=한국주기주수 선물시장에서의 요일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강영길=은행의 ALM 분석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은행을 중심으로 -
 △지경호=WTO체제하에서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WTO 출범을 중심으로 -
 △성미옥=매트브나 진출 한국제조기업의 경쟁우위 및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김주용=한국 대중국 투자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문호성=국가간 자본이동에 따른 환위험 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수출가격과 수출물량변동을 중심으로 -
 △임영길=군인 연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승호=기업합병시 중역에게에 관한 연구
 △최상수=시장개방 부동산 서비스산업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영=군 지휘통솔 교육에 관한 연구
 △정준석=일본의 신방위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연구
 △이정민=신체적 장애의 지휘통솔에 관한 연구
 △이주영=한국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Herzberg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
 △강창보=한국의 주택임대차제도에 관한 연구 - 주택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
 △이승기=부동산유통근대화에 따른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부동산 컨설팅을 중심으로 -
 △박정희=사찰부동산에 관한 소유 및 관리체계의 정립에 관한 연구
 △이철현=초등학교 조직건강진단에 관한 연구
 △박수환=초등학교 특수학급운영 진전에 관한 연구
 △이일성=학교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행정직의 역할 지각과 직무수행의 만족도 분석
 △김동범=남·북한 중등교원 양성제도 비교 연구
 △이창우=학교행정직의 도덕성 수준에 관한 연구
 △최유영=중학생들의 진로계획과 교과활동 및 흥미검사 결과간의 관계 분석
 △김경숙=불교유치원 교육 활동 모델 - 불교사대 명절을 중심으로 -
 △정유영=팔경도의 육바리달을 중심으로 한 유아인지 및 정서 프로그램 연구
 △김은혜=이비치의 양육 행동 및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이석범=중교계 유치원 교사의 직무만족도 조사 연구
 △박병화=정지용 초시기 연구 - '남', '바다', '고향'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
 △최은희=김동희 소설에 나타난 종교성 연구 - 시기를 중심으로 -
 △박미서=백석시 연구 - 원형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
 △류향순=박대원소설의 공간화 기법 연구 -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천변풍경'을 중심으로 -
 △백원선="독서" 교과의 교재 분석연구 - 현행 교재와 8종 교과서를 중심으로 -
 △김성자=생활공간 시교육의 방법 고찰
 △정성우="살대"와 '태평천하'의 비교 연구 - 인물을 유형을 중심으로 -
 △김재성=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하-'의 대항기능 고찰
 △이석범=극양식으로 본 '유미경'의 등장 인물 고찰
 △이재진=고등학교 공물사(한국지리)교과서 분석 - 생활공간 단원의 학습목표·내용·평가 준형을 중심으로
 △김은진=관악·동작지역의 경관 변화
 △강석민=여말 선초 통이새이 정서와 왜구대책
 △염도연=충청남도에서의 직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충화교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
 △한승수=능력별 반별성에 제한과 및 의의조사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 수학과 중심으로 -
 △조남두=법문을 통한 논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토목의 연구
 △김성수=수학적 사고력의 측정방법에 기초한 평가방법의 개선 및 실험효과에 관한 연구
 △박순자=수학교육의 흥미유발을 위한 수학적 자료개발에 관한 연구
 △조민재=해강 최항기의 주기 철학과 현실성의 관계연구
 △이영기=초등학교 관화 교육에 관한 연구 - 서울의 초등학교 6학년생을 중심으로 -
 △오광진=조선시대 초충도에 나타난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
 △조금옥=조선시대 조각보의 조형성 연구
 △김용숙=한국의 민화와 그현대적 적용에 관하여
 △이현미=선물시장 규제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주기주수 선물시장을 중심으로 -
 △이은재=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형성과 한국기업의 진출방향에 관한 연구
 △이갈용=직업근로의 전역시 고용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기=우수 중소기업설계 중시원의 이직을 감소 방안에 대한 실증적 연구
 △유희수=연봉제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권순철=리더십 유형과 종업원의 직무만족 - 중소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
 △노희영=조직 커뮤니케이션과 조직문화에 관한 연구
 △김기원=국내은행의 인사고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H은행을 중심으로)
 △이종범=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설비배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허남익=국내 은행상품·서비스의 유통경로 전략에 관한 연구
 △김재현=은행의 신상품개발에 관한 연구 - 금융자유화에 따른 사례분석 및 의의조사를 중심으로 -
 △백동현=한국주기주수 선물시장에서의 요일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강영길=은행의 ALM 분석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은행을 중심으로 -
 △지경호=WTO체제하에서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WTO 출범을 중심으로 -
 △성미옥=매트브나 진출 한국제조기업의 경쟁우위 및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김주용=한국 대중국 투자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문호성=국가간 자본이동에 따른 환위험 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수출가격과 수출물량변동을 중심으로 -
 △임영길=군인 연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승호=기업합병시 중역에게에 관한 연구
 △최상수=시장개방 부동산 서비스산업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영=군 지휘통솔 교육에 관한 연구
 △정준석=일본의 신방위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연구
 △이정민=신체적 장애의 지휘통솔에 관한 연구
 △이주영=한국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Herzberg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
 △한현욱=한국산 조망성 거미류의 그룹형태의 연구
 △한시연=교육연구가 및 교육활동가의 고등학교 가정교과교육에 관한 인식도 연구
 △이명진=1990년대 남성복에 재현된 모즈 스타일(Mods Style)에 관한 연구
 △고경길=한국에 유입된 일본의 신종교 연구 - 천리교, 일원정종, 입정교성회 -
 △홍현이=두보의 사회사 연구
 △황성도=인터넷 텍스트 사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종택=World Wide Web에서의 검색엔진의 검색효율 평가를 관한 연구
 △한정희=케이블TV 프로그램의 특성화 사례 연구 - 불교 텔레비전 '선재님의 푸른 맛 푸른 요리' 프로그램의 특성화를 중심으로 -
 △이보길=방송뉴스 해설에 관한 비교 연구 - KBS와 NHK 뉴스 해설을 중심으로 -
 △김정희=방송뉴스의 사용자 특성 연구 - 이용과 충족이론을 중심으로 -
 △박기희=알려리와 인격권의 조화에 관한 법제 윤리사례연구 - TV뉴스의 제작시스템을 중심으로 -
 △김상근=달 장르 프로그램의 제작형태에 관한 연구 - TV는 사랑을 싣고'와 '체질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김지완=한국신문의 상업성과 가사의식에 대한 연구
 △고병재=UIF대역 이동통신망 전파 품질 분석 연구
 △박정근=인천국제공항 스위칭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 연구
 △유성경=군 위성통신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조성민=캐시공간의 표현에 관한 연구 - 잡지 광고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김기도=교통신용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 지하철 광고를 중심으로 -
 △정유선=키지노산업의 효과적인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 한·미·일본의 대표적 키지노 산업 사례를 중심으로 -
 △김성숙=정전기력에 따른 정전여과포 집진장치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정현=양육자형 LDM의 수력 상장에 관한 연구
 △김희관=케르티 네트와 퍼자네리 이론을 이용한 반도체 자동조립공정 시스템 제어
 △이은영=3상 유도전동기의 2단 제동시스템에 관한 연구
 △김성국=관능검사와 반응표현 분석에 의한 브라울로스 제법의 최적화
 △송미선=냉동·해동 및 냉각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
 △이규원=부부의 응고제와 저장·가열 조건에 따른 조단백질 및 아미노산 함량
 △박진철=ISO 9000 품질시스템 구축시의 접근방법과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김현용=샌드드래인 공법을 이용한 연약지반 설계에 관한 연구
 △박근철=평화필설의 포장재질에 따른 품질인정성
 △박영진=유성을 이용한 무산효율 증진장치 및 BBR분석
 △노정근=켈테마 가솔공법(F.C.M)에 의한 교량의 상부처짐 원인 분석 및 보강 방안연구
 △김영숙=자연형 하천개발공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연구
 △손정호=자동차재 감지 설비의 오동작 방지에 관한 연구
 △한영진=경주마 열역에서의 DYPYRONAT을 대사체 분석법에 관한 연구
 △한승근=유기합성 나노복합수 중의 대장균 중시역에 미치는 영향
 △이정규=축산 이윤성 제조시 HACCP의 적용
 △김관호=JSP공공도로 만든 지중방진벽에 의한 진동감쇠 효과
 △한혜민=김승수 소설연구 - 공간과 인물의 유형을 중심으로 -
 △홍영철=이상의 '오감도' 연구
 △배성현=조택원파 그의 '가사호정' 연구
 △복호천="서편제" 총원인 연구
 △차두용=1980 - 1990년대 변천기의 한국영화연구 - 사회환경변화가 영화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김성중=조선 후기 관음보살도 연구
 △신주호=19세기 아미타화화의 연구

문학예술대학원

△한혜민=김승수 소설연구 - 공간과 인물의 유형을 중심으로 -
 △홍영철=이상의 '오감도' 연구
 △배성현=조택원파 그의 '가사호정' 연구
 △복호천="서편제" 총원인 연구
 △차두용=1980 - 1990년대 변천기의 한국영화연구 - 사회환경변화가 영화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김성중=조선 후기 관음보살도 연구
 △신주호=19세기 아미타화화의 연구

지역개발대학원

△최병준=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무 배분 개선방안
 △이희용=컨테이너의 함안, 내륙연계 운송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봉준=경주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방안

퇴임교수 인터뷰

그대, 한번은 다 바치고 다시 겨울나무로 서 있는 동국인이여

인터뷰에 응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날에 무한한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교대 불교학부 이자판 교수님과 경상대 회계학부 윤종안 교수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터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편집자

“나의 애창곡은 ‘교가’ 동국대학은 평생을 같이한 반려자”



불교대 불교학부 김영태 교수

연구실에서 짐을 꾸리는 김영태(불교학)교수의 뒷모습이 쓸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난 학교 발전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 후진들이 클 수 있는 것 아니었어? 참 출가분하지” 오랫동안 지켜왔던 연구실을 떠나면서도 서운해 하지는 않겠어. 오히려 즐거워하는 김교수는 “가야할 때를 알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답다”는 시구절의 인물을 떠올리게 한다.
55년도에 불교 불교학과에 들어와 석사 학위를 받고, 일본 불교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교수는 한반도 모교를 떠난 적이 없다. 지방에서 강의를 하던 시절에도 방학이면 어김없이 본교의 불교문화연구원에 와서 공부를 했다. 이러한 김교수의 모습엔 모교에 대한 사랑과 연구에 대한 열정이 배어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도 마음 아픈 일이 있다. “내가 이 학교에 들어올 때는 불교학과였으나, 학부제로 되면서 불교학 연구의 전공무대가 사라지게 되었지. 금년 졸업이 끝이 아니듯 퇴임 또한 학문의 또 다른 시작점일 뿐

업을 끝으로 불교학자가 없어지게 돼서 매우 섭섭해”라며 서운함을 이내 감추지 못했다. 또한 김교수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본교가 4대명문 중의 하나로, 그야말로 명문사학이었는데 지금은 학교의 위상이 예년같지 않다며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한다.
노래방에 가 본 적이 있느냐는 기자의 영종한 질문에 김교수는 “난 부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라서... 실상 부르거나 듣거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교가’야. 근데 노래방엔 교가가 없더라구”라며 작은 미소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교수는 사랑하고 정들었던 모교가 세계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학생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지성인으로 학부생활에 충실하기를 당부했다.
김교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따지고 보면 제자들이 이전에 학교 후배이기도 하니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라며 가끔 졸업생의 어깨를 다독거리 주기도 하며 선배로서의 충고도 잊지 않았다.
“거룩한 삼보의 언덕위에 한줄기 눈부신 동국의 빛~ 겨레를 위해 인류를 위해 이땅에 새 역사를 창조하리라” 떠나가는 김교수의 뒷모습에서 교가가 울려 퍼지는 듯하다.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 제자들이 자긍심을 갖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정년퇴임이라는 것은 직업에 있어서 정지할 ‘정’자를 찍는 것일뿐 학문에 있어서는 끊임이 없다”며 김교수는 끝이 없는 새로운 논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취재부

졸업이 끝이 아니듯 퇴임 또한 학문의 또 다른 시작점일 뿐



문과대 인문학부 강재륜 교수

“15년이나 됐네”
강재륜(국문리학과) 교수는 퇴임을 준비하며 책상정리를 하는 교수답지 않게 무척 무덤덤하게 첫말을 열었다.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졸업해서 서울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본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강재륜교수는 한 때 중앙일보사 동서문제연구소에서 공산권문제를 연구한 80년대 공산주의에 관한한 알아주는 학자였다.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제쳐두고 83년 본교 교수의 길로 들어선 것은 오로지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었다는 일념에서였다.
“대학생들에게 사상의 건전함을 심어주고 싶었지. 재임 당시만 해도 제대로된 지식없이 단순한 맑스이론이 저항적이라는 시각으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어. 그런 학생들에게 철저히

과학적인 비판으로 공산주의를 일깨워주려 했지”
그러나 그의 교수로서의 생을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 듯 했다.
“글쎄 본인의 임무를 다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 교수로서의 자리를 후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한 것 같아”
강교수의 말에서 확고한 교육철학에 대한 열의와 자신에 대한 겸손함을 지닌 교육철학자의 모습이 풍겨져 나왔다.
“암기위주의 공부가 잘하는 공부로, 암기 잘 하는 사람이 유능한 인재로 인정되는 교육체계가 잘못된 것이며 지금의 사회 문제가 이런 교육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강교수의 열띤 어투에서 자신의 퇴임이 교육자로서의 삶에서 하나의 전환점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강교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2남 1녀의 아버지로서의 자리가 평생 자신의 자리가듯이 교육자로서의 자리 또한 평생 자신의 자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강교수가 회고하듯 재임초기에는 매일 아침 학교에서 정구로 일상을 시작했으나, 현재 그는 학교 비탈길을 오르기도 힘들다. 그러나 육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능력을 잃어갈지 모르나 그의 교육철학은 시간 속에서 더욱 견고히 다져져 더이어나 돈드처럼 빛날 것을 기대한다. 최진 기자

나의 발전이 곧 학교의 발전 ‘하면된다’는 진취적 사고 키워야



법과대 법학과 이순용 교수

“아직도 못다한 일이 너무 많아 떠나는 게 아쉬움이 남네”라며 퇴임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순용(법학)교수.

1968년 본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본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 1977년부터 본교 교수로 재직하던 이교수는 동문으로서 본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남다르다.
법학 분야 중 특히 토지관계 법률에 관심을 갖고 두루 학문활동에 매진하며 토지관계법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다했다. “토지관계법이 일시적이고 행정성 편의적으로 입법된 경우가 허다하고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느껴 토지관계 법률에 정진하게 되었다”라고 토지법률에 열과 성을 다해가던 계기를 회고했다.
재임 중 기초조립실장, 교수회장, 법과대학장, 계산고시학과 사감 등을 두루 거친 이순용 교수는 “90년대 초 경부고속철

도가 경주캠퍼스를 관통한다는 사실을 듣고 직접 경주로 내려가 경주캠퍼스 동국인들과 경부고속철철 통과 반대운동을 펼쳤던 것이 아직도 기억속에 생생하네”라고 과거를 회상하며 그 당시 교수 신분으로 “제 2의 이차돈이 된다해도 경부고속철을 반대한다”고 외쳤던 것이 재임 중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동국인에게 “앞으로 제3캠퍼스·불교종합병원 건립과 더불어 불교종합대학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됐으면 좋겠고, 학생들은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고 ‘하면 된다’는 일념하에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퇴임 후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건강관

리가 가장 우선이었고 건강이 허락되고 여건만 주어진다면 사회봉사를 뜰고 고칠 수 있는 사회정화운동에 기여하고 싶고, 본교 고시생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 줄 것이라네”라고 퇴임 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엿보였다.
30년 이상을 때로는 교육자로서, 때로는 학자로서, 때로는 대선배로서의 외길 인생을 걸었던 이교수. “매년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제자들을 볼 때 교육자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가끔씩 관·검사 제자들이 찾아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 없다”며 교육자의 보람을 느낀다는 그의 뒤로 어느덧 봄을 알리는 햇살이 비추고 있다. 오인택 기자

배움, 무한한 즐거움 도서기증으로 동국사랑 나누며 살터



상경대 경상학부 김시배 교수

연구실의 문을 두드렸을 때 처음 눈에 들어 오는 것은 비어있는 책장과 방학중에도 나와서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김시배(경제학) 교수였다.
“교수님 책은 다 어찌하셨습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책은 내 것이 아니라 책을 볼 때 책의 가치가 있으니, 학생들이 보라고 도서관에 기증을 했네”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남아있는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자신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 빈 책장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것 같았다.
동문선배이기도 한 김시배 교수는 “자식들을 데리고 나를 찾아오는 옛 제자들을 볼때면 교직이 천직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한다. 그러한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학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김교수가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한 단어

는 ‘정직’이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교직생활의 마지막 시험에서 학생들 절반이상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퇴임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시험지 밑부분에 편지를 남긴 제자들을 은근히 자랑스러워 하는 모습에서 미소녀같은 순수함을 엿볼 수 있었다.
32년 일제시대에 태어난 김교수는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4.19, 5.16등 우리나라의 힘든시절을 겪었다.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 강단에서 마지막 구실을 감수하지만 정갈하게 꾸며져 있었으며 그의 괴로움이 내일의 즐거움이라는 그의 긍정적인 가치관에 기인한다.
“모든 것은 자기에서 비롯되어 기쁨과

괴로움이 결정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남아있는 동국인에게 전하기도 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항상 ‘정직’이라는 것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고,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경제학이 아닌 다른 공부도 해보고 싶으며 공부의 욕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고집스럽기까지 하다.
또한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면서 “내려나중에 이만큼 또 기증할거야”하며 웃는 모습에서 그의 남다른 동국사랑은 퇴임후에도 변치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에 충분했다. 취재부

27년, 교육자의 외길 인생 “사랑으로 맺은 사제연보다 큰 보람 있으랴”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장재명 교수

공과대학의 터줏대감 장재명(전기공학)교수. 공과대학이 막 걸음마를 시작했을 71년부터 지금까지 27년간 동국을 꿰뚫어

지켜왔다.
“큰 일 없이 퇴임할 수 있다는 것만도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장교수는 요즘 그의 소박한 말처럼 책을 읽거나 졸업생들을 만나는 것을 주된 하루 일과로 삼으며 살고 있다. 바쁘게 살아왔던 지난 날에 비해 요즘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졸업생들과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제자들의 주례도 자주 선다는 그는 인터뷰 후에도 졸업생들을 만나러 가려한다며 웃음을 지었다. 그에게 제자들은 자식과도 같은 존재이며 제자들은 그를 믿음으로 따르는 듯했다.
하지만 공과대학 학장으로 재직했던 동

안 그와 학생들간의 관계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95년도 ‘교육개혁’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학정실을 점거당하는 고충도 겪어야 했다. 장교수는 “학생들의 입장에 이해하지만 학생들은 되도록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충고를 잊지 않았다.
장교수에게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들에 대한 고민이 크다. 그는 “요즘 학생들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생활을 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도 어려운 이때 학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한다”는 말을 학생들에게 하고 싶다

고 전한다.
장교수는 자기유미 없다. “아마 나에게 차가 생긴다면 그건 길에서 주운 것일거야”라며 웃음을 자아내는 장교수. 그의 연구실은 검소하지만 정갈하게 꾸며져 있었다. 교수 본인부터 절박하는 모습을 보이며 제자들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장재명 교수, 그에게는 수십년 간의 교직생활에서 훈장으로 남은 제자들이 있고 앞으로 마음껏 학문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러한 것들이 장교수로 하여금 행복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사회부

교수·학생·직원·재단 하나되면 일취월장 지와 덕을 겸비한 인격 갖추길



공과대학 건축·토목공학부 김세빈 교수

“누구나 그렇듯 나 역시 시원섭섭하네” 1957년 교육계에 발을 디뎀 40여년동안이

나 걸어온 길을 떠나는 소감을 담담하게 밝히는 김세빈(토목공학) 교수.
서울대 토목공학 학사, 건국대 콘크리트 공학 석·박사를 거쳐 공과대학이 초산의 고향을 겪고 있던 1971년 3월 1일 본교에 부임, 그는 그의 젊음을 동국대에 바쳤다.
교육자로서 재자가 사회에 나가 훌륭한 모습으로 찾아 올 때 가장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는 김교수는 95년부터 2년간 부총장을 지내며 교육개혁에 앞장서는 등 동국발전엔 자신의 온 힘을 기울였다. 또한 ‘지하철 1~4호선 토목구조물 안전진단 연구 보고서’, ‘토목 재료학’ 등을 집

필하고, 한국 콘크리트공학회 회장, 대한토목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연구활동과 사회활동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근래에 들어서 학교발전을 위해 동국인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교수·학생·직원·재단이 계속 힘을 모으는 것이라 학교발전을 위한 격려를 빼놓지 않는다.
“우리엔 막노동관에서 학비를 마련하는 등 어려운 세월을 보냈지만 요즘 학생들은 힘든걸 몰라”라며 “젊은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IMF 시대를 사고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해”라고 당부한다.

대학은 교육의 장일 뿐만아니라 인격도야의 터전이라고 말하는 김교수는 학생들이 성실히 공부하되 자기자신 보다는 남을 위하는, 지와 덕이 겸비된 인격을 갖추길 간절히 바란다.
명예교수로 남아 학부와 대학원 강의를 하고, ‘경부고속철도 WJE 추가정밀 조사’ 기술자문 안전진단 위원장을 맡는 등 김교수의 열정앞에 ‘퇴임’은 무색하기만 하다. ‘정직’과 ‘성실’이 두가지 가치관으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젊게 살아온 김세빈 교수. 그의 ‘퇴임’은 시간의 흐름만을 의미할 뿐, 또다른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김용환 기자

새내기 이리저리 '바쁘다 바빠'

학교- O·T 18·19일 장충체육관, 학생회- 20일부터 23일 속초 일원

총학생회 제30대 총학생회 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이성진·수교3 사범대 학생회장 이하 비대위)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속초일대에서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를 실시한다.

밤이 깊을수록 밝은 빛난다'라는 가치어래 실시되는 이번 새터는 공대, 사범대, 생자대, 예술대, 사과대 등의 1진과 야총, 문과대, 경상대, 이과대, 법대 등의 2진으로 나누어 중앙공원과 각과대 행사를 갖는다.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새터는 △첫째날-입소식, 중앙공원, 단원행사 △둘째날-새내기 청년강좌, 단과대행사, 중앙공원 △셋째날-단과

대 행사 △넷째날-퇴소식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새내기 청년강좌에는 정태준(가수)·이영미(문화평론가) 씨 등이 강사로 출연한다.

그러나 신입생들에게는 18일부터 19일까지 학교 오리엔테이션, 20일부터 23일까지 새터, 23일부터 26일까지는 신체검사사 이어져 있어 일정상 쉴 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학교측에서 계획했던 일정이 조정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 기간으로 행사를 잡게 됐다"고 밝히며 "재학생들도 많이 참가해 선·후배와 동기간의 정을 쌓을 수 있는, 모두가 하나 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대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법주사에서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실시한다.

학교 98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오는 18일과 19일 이틀동안 장충체육관을 비롯한 교내외에서 열린다.

18일 장충체육관에서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되는 전체 오리엔테이션은 △학교홍보비디오 상영 △입시중 기화조정실장 학교 현황 설명 △승석구 총장 특강 △불교 합창단 공연 △김주환 교무처장의 본교교육제도 소개 △소설가 조정래 동문 특강 △백상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오

후 2시부터는 세미나실을 비롯한 강의실에서 모의토의시합을 치르고 수강신청안내가 이어진다.

둘째날인 19일에는 오전 9시부터 단과대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후 컴퓨터실습실에서 수강신청을 하는 것으로 전체일정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학생과의 한 관계자는 "신입생들에게 학교를 소개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모든 동국의 신입생들이 어우러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오리엔테이션의 의의를 밝혔다.

일반 휴학 19일부터 23일

복학·재입학 18일까지

교무처(처장=김주환·지리교육) 학적과는 '98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 원과 복학·재입학 접수를 받는다.

일반 휴학원은 학적과의 소정양식을 작성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일반 휴학기간 2학기가 만료된 학생은 반드시 휴학 연장원을 학적과에 제출해 제적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복학·재입학원은 오늘(16일)부터 18일까지 각각 복학원서 1부와 재입학원서 1부를 작성·접수해야 한다. 그러나 군복학자의 경우에는 복학원서 1부에도 기전역사를 전역일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1부를,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자 각서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채란 장학생 신청·접수

여학생부처(처장=임은희·사학)는 오늘(16일)부터 23일까지 98학년도 1학기 채란 장학생 신청서를 받는다.

채란 장학생 선발은 성적 우수하며 봉사정신이 뛰어난 본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여학생부처의 심사를 통해 총 10명의 여학생을 선발한다.

채란 장학생은 각 7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되며, 여학생부처에서 주 6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학내 주체들 합심으로 동국관에 BSC설립

공간문제 서로 한발 양보 ... 질 높은 정보 제공 기대

컴퓨터실 및 첨단강의실 등이 들어서는 Business Solution Center(이하 BSC)가 학생회, 학교·교수 3주체의 두달여간의 대화 끝에 공간문제 합의를 이루어져 동국관 M동 1층에 설립된다.

BSC시설은 경상대 교수들로 구성된 경상대학발전위원회(위원장=박강식·경제학 경상대학장) 및 소위 위원회와 경상대학 특성화 사업을 위해 계획한 사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BSC시설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시작됐으며, 이로 인해 학생 자치 공간이동과 BSC시설 공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다.

학생회측과 학교측, 경상대학발전위원회는 이 공간문제를 놓고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 두달여간 논의를 해왔다. 그 결과 학생회측은 자

치공간의 축소를 받아들이고, 학교측은 법대, 사과대, 경상대, 야간강좌 등 4개 단과대에 강의실 3개 등을 자치공간으로 내 주게 되어 BSC공사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것이다.

4개 단과대의 30개 학생회 및 소모임 중 18개는 기존의 정보관리학과 실습실·멀티미디어 연구소·L101·L103·M209강의실·광고학과 실습실로 이전하며, 다른 4개(경상대 3, 야간강좌 1)는 대체 공간부족으로 인해 M동 1층에 잔류하게 되었다. 나머지 12개 학생회 및 소모임은 축소 또는 폐쇄되며 이러한 공간 이전 작업은 이달말까지 종료될 예정이다. 단과대별 공간활용은 개강 후 각과 학생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BSC시설 설립에 대한 공간대형

성으로 이루어진 학생회측과 학교측의 타협은 공간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BSC시설은 오는 5월경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4개 단과대 전공수업을 위한 사회계열 공용공간으로 활용되고, 컴퓨터 1백여대가 설치되는 개방형 실습실과 첨단 강의실, 정보관리학과 실습실, 광고학과 실습실 등이 들어선다.

BSC시설 설립의 근본목적은 컴퓨터 시설의 집중화로 시설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4개 단과대가 공유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높이는 데 있다. 경제불황의 여파로 기저재구입비 및 운영인력의 확보 등 BSC의 내부시설 설치에 진통을 겪고 있으나, 청단 장비 갖춘 BSC는 동국의 자랑스러운 자리가 될 것이다.

신입·복학·편입생 수강 신청

교무처(처장=김주환·지리교육)는 '98학년도 신입생과 복학생, 편입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을 실시한다.

신입생은 오는 18일 중앙오리엔테이션과 모의토의시합이 끝난 후 단과대별로 수강신청에 대한 교육을 받고,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단과대별로 지정된 컴퓨터 실습실에서 조교의 도움을 받아 수강신청을 하게 된다.

복학생의 경우에는 복학원을 접수하는 오늘(16일)부터 18일까지 원흥관 5층과 개교90주년기념 문화관2층 컴퓨터실을 제외한 교내 컴퓨터실에서 실시한다. 수강신청원 및 강의시간표는 복학원 접수시 학적과에서 배부될 예정이다.

한편, 편입학생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본교 중앙당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이후에 해당단과대학별로 수강 신청을 한다.

도서관 멀티미디어실 3월초 공사 마무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멀티미디어실이 도서관(관장=임호일·독문학) 1층 열람실에 들어선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멀티미디어실 설치 공사 기간은 대략 한달 정도이며 98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초에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총 40석의 좌석을 갖춘 멀티미디어실은 인터넷, CD-ROM, VCD, 카세트 테이프, 위성방송등을 이용할 수 있어 학생들의 첨단시설이용에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석졸업생 인터뷰- 신은지(정외4) "4년동안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시작과 끝, 끝과 시작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졸업'이다. 취득 학점 1백40, 평점 4.37과 7학기 조기졸업으로 그 끝을 최고의 자리에서 맞는 신은지(정외4)양. 그러나 그녀에게는 최고의 자리가 쉽게 믿겨지지 않는 듯 하다.

"예? 수석이었어요? 정말이예요?"

"네. 모르고 계셨나요? 정말 수석졸업입니다"

두 번 세 번을 물어보고 나서야 자신의 수석 졸업 사실을 확인한 신은지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그냥 답답합니다. 그리고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말하며 "수석 졸업도 좋지만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저를 비롯한 모든 학생들의 진로문제가 더 걱정이 아닐까요"라고 취업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밝혔다.

"평범하게 생활 했어요. 공부도 그렇고, 학교생활도 그렇구요. 이 평범함이 가끔 깨질때도 저의 대학시절은 '평범'이었어

요"라고 그의 대학생활을 소개하는 그녀는 오히려 이런 평범함이 조금은 아쉽다고 한다. 다른 학생들처럼 학과나 동아리 생활을 열심히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그녀는 학교생활에 있어 자신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많은 친구를 사귀지 못한 것 같다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다.

성적관리도 어떻게 했느냐고 묻자 그녀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단지 제가 실천했던 것은 첫째도 철저한 수업, 둘째도 철저한 수업이었지요. 사실 저는 수업을 안 들어가면 어딘지 모르게 짊짊한 기분이 들었거든요"라며 "학생이라면 다른건 몰라도 수업은 꼭 들어가 해요"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고교시절 의욕도를 꼽자면 그녀는 그 꿈을 접은채 현재 본교 정외과와 맞은 인연을 쉽게 끊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얼마전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잘 적응도 안되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전공을 살리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디다"라고 이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원칙'과 '의지'로 만들어진 신은지양의 대학시절. 그러나 또다른 시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에게 있어 이번 졸업은 결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환한 첫걸음일 뿐이다.

유희주 기자

현전무대

졸업시즌

O... 이 대학, 저 대학에서 요즘 졸업식이 한창.

그러나 올 졸업식에선 예전과 달리 생소현(?) 노래가 울려 퍼진다는데.

"늘고먹는 백수가 되는 선배님..." 이유인 즉, IMF 한파로 취업을 하지 못해 그렇다는데... 이에 졸업생들, 후배에게 간곡한 한마디 "우린 I Am F지만, 여러분은 꼭 I Am A이길..."

유비무환

O... 특별광고!

- 학생회관 방중 특강 실시 -

1. 강의제목 : 유비무환의 자세를 기르자

2. 강의장소 및 일시 : 학생회관 화장실, 수시로

3. 강의내용 : 화장지가 없는 화장실에서의 실제 체험으로 학생들에게 '유비무환' 자세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4. 강의대상 : 학생회관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든 동국인

이제 광고를 본 회장무대자 왈 "공부는 안 해도 좋으니, 우리에게 휴지주세요!!"

부다쳐가게

O... 지난 11일 해화관 로비에서는 생자대 자치공간문제로 학생들과 교직원간의 뽀새음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소속을 밝혀라", "생자대가 아니면 헬리 들어가라"고 소릴지르기도.

그러나 학생들은 "학생회 소속입니다"라는 대답 외에는 침묵으로 일관.

이에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학생 한마디 "학생회는 따로국밥이 아니라, 부대찌개랍니다!"

길은 동쪽에(?)

O... 지난 12일 본관에서 낯선(?) 사람의 향기가 났다!

알고보니, 이들은 신입생 2차 추가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어서 합격증을 받으러 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이었다.

그러나 본관에겐 합격증 교부 장소에 대한 안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그들은 '이리 저리' 헤매다가 지도.

이에 한 학우 왈 "신입생 모집요강에 '길은 동쪽에 있다'고 했거늘..."

납입금 수납

'98학년도 제1학기 학부 등록금을 다음과 같이 수납합니다.

- 납부기간: 1998년 2월 23일(월)~2월 28일(토)
- 납부처

납부처	대상 학생
제일 및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	★전산처리된 고지서를 소지한 학생 (전산으로 장학생 및 복학생 고지서 포함)
제일은행 동국대출장소	★장학금 지급의뢰서를 소지한 학생 (등록금 고지서와 장학금 지급의뢰서를 함께 납부처에 제출하여 차액만 납부)
제일은행 동국대출장소	

* 등록금 고지서는 분실, 오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무저장

98-1학기 제1차 외국어특강

구분	영어회화 강사 및 강의실			English Composition	TOEIC	Listening
	Intermediate	Higher Intermediate	Advanced			
오전	07:30-08:50 Angela Gats (강의실 A)	Nicholas Garrison (강의실 B)	Paul Leslie (L310-a)	Paul Sether (Lab A)	Leon Kaye (Lab A)	Joseph Schowweler (Lab B)
오후	17:00-18:00 Tiny Body (강의실 A)	Bridget McGrath (강의실 B)	Bruce Dawson (L310-a)	Eric Frochasta (L310-a)	Paul Troschway (Lab A)	Irene Hansen (Lab B)
수강료	30,000원			40,000원	30,000원	30,000원
기간	1차: 2월 3, 2-4, 10(9주)					
접수처	외국어교육원(동국관 1층 2층)					
접수기간	1차: 2월 23일부터 선착순 마감					

외국어교육원

TEL: 260-3470/1

졸업생 출자금 환불

- 대상자: 1997학년도 전기 졸업자(학부, 일반 대학원)
* 1998. 2. 16(월) 학위 수여자
- 환불 기간
1) 1차: 98.2.13(금)~2.17(화)
2) 2차: 98. 2. 23(월)~계속
* 가능한 1차 환불기간에 많은 수령을 바랍니다.
- 환불장소
1) 1차: 각 대학/대학원 교학과 및 학과 사무실
2) 2차: 생협 사무실(해화관 1층)
- 환불 내용: 10,000(출자금 원금)+기념품
- 환불 방법
1) 해당 졸업생 본인이 출자금 환불 명부에 직접 서명 날인하고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2) 1차 환불기간내에 수령하지 못한 졸업생은 생협 사무실로 직접 오시기 바랍니다.
* 2차 환불시는 본인의 신분증(학생증, 주민증, 면허증 등)지참 요망
- 문의처: ☎ 260-8951~3, FAX: 271-3129, 천리안·하이텔·나우누리 공동 ID: dgucoop
인터넷 홈페이지: 203.253.129.61

조합원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생활협동조합

1998학년도 봄학기 수강생 모집

- 모집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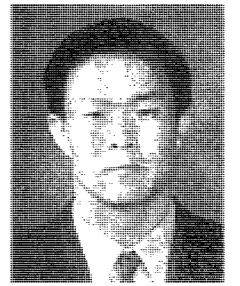
과정명	분과	세부과정명	교육기관	주요구분
교양교육과정	문과	필요한 자유인간 I, II	1학기	주요
		필요한 이해와 연습 I, II	1학기	주요
		생활철학 (윤리·인성·종교학)	2학기	주요
		생활철학 (윤리·인성·종교학)	2학기	주요
		사군자	2학기	주요
		자애 (한글 한글)	2학기	주요
	문과·취미	한자공예(그림·기초·고급·이론)	1년	주요
		시간활용	1년	주요
		필수수업	1년	주요
		노래교실	1학기	주요
		외국어(외국어학) (영·일·불·중·어)	1학기	주요
		한민족문화	1학기	주요
전문교육과정	문과	스피킹(토론·중급·수업)	2학기	주요
		기초영어(토론·중급·수업)	2년	주요
		영어회화	1학기	이양
		기초영어(토론·중급·수업)	1학기	주요
		한민족문화와 계승	1학기	주요
		자녀의 창의성 교육	1학기	주요
	문과	부모애정, 어떻게 할 것인가	1학기	주요
		부모애정 교육	2년	주요
		부모애정	2학기	주요
		부모애정	2학기	주요
		부모애정	2학기	주요
		부모애정	2학기	주요
전문교육과정	의과	필요한 필수교육	3년	주요
		필요한 필수교육	3년	주요
		필요한 필수교육	3년	주요
	의과	필요한 필수교육	3년	주요
		필요한 필수교육	3년	주요
		필요한 필수교육	3년	주요

- 지원자격
- 제한없음 (단, 불교영양은 고졸이상)
- 원서교부 및 접수
1998년 2월 16일(월)~2월 27일(금) 사회교육원 교학과 (90주년 학술관 1층)
- 제출서류
가)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와 사진(3x4cm)3매
나)주민등록등본 (동국대 TV볼로이카메이,과정 지원자에 한함)
- 문의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과(우100-715)
TEL: (02)260-3728~9 FAX: (02)260-3730

사회교육원

평범하고 창의적인 사고로의 회귀

달하나 건강에



박선동
한의대
한의학과 교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모든 생활상의 문제에 있어 완급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하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자기 스스로 반성하는 나날일 수 없기에 때로는 분수에 넘치는 것에 무감각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으로 남달라 하며 지내온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지금같은 난세에 창의적인 생각으로 적극적인 돌파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약하고 불안한 심리상태에 빠져들어 회의주의적 자기 안일에만 빠지거나 공격적인 병적상태로 남을 이용하려는 알뜰한 한견주의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이 자연속에서 다른 사물처럼 평범하게 존재한다는 의식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자기자신을 포장하는데 많은 투자를 했다. 정신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육체적 외모를 과시해 온 것이다.

답백하고 맛있는 행복이 아니라 기가차게 맛있고 터질듯한 포만감을 누려온 것이 지난 몇 년이다.

또한 누워 편히 쉬 수 있는 아늑한 잠자리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저 큰 명수면 엄청난 삶의 질을 보장받는 듯 너너

이 땀땀하게 해 온 것이다.

이렇듯 인간은 자연 질서 속에서 자신들이 누릴만한 과욕을 실패 부려온 것이다. 노자의 절학관을 재삼 인용하지 않더라도 쉬이 자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결국 자연스럽고 평범한 생활이 나와 사회를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 책임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둘러보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여야 한다. 저녁 9시 뉴스는 그것에 삶이 모든 것을 맡겨놓은 모든 이들이 본다. 그리고 나라와 정치인을 탓하고 마치 자신의 인생이 뉴스와 닮은양 쓴 웃음을 지으며 때론 공허하게 12시가 넘도록 TV 앞에

누워있곤 한다.

집안의 어려움을 인식하면서도 자기의 필요성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왔다. 우리가 가진 지식의 인플레이션은 한계에 다다랐다.

현실이 주는 병리적 진단을 자신이 의외로 찾아 헤메고 있고 자해로운 문제의 해결책은 찾아 못한 채 핑계만 내댈었다. 이제는 속제를 푸는 방식에 있어 다급하고 단순하게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단순논리에 봉착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자신이 책임진다고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해결방법은 천변만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5가지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평범한 방법에 대해 일찍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일깨우고 있다.

“당신이 어떤 외부적인 이유로 괴로워한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그 외부적인 일 자체가 아니다. 그 일에 관한 당신의 판단이다” 그런데 그 판단은 당신의 생각 하나로 금새 지워 버릴 수 있다.

창의적이고 책임성있는 생활자세야말로 자신과 나라를 일으키는 올바른 길임을 제시하고 있다.

졸업, 변치 않는 의미에 대하여

‘청춘시절’ 값진 의미, IMF 로 퇴색시키지 말아야



전나라가 IMF병을 앓고 있다보니 졸업의 풍경도 예년 같지 않다. 졸업대목을 노린 꽃들이 뿔뿔이 떨어져 떨어져 나가 버렸다. 졸업생들이 졸업의 의미를 찾는 모습이 여기 저기 눈에 띄기도 하고, 일간지 여론면에는 ‘나라가 이모양인데 무슨 선물이나 더 선물주지 않기를 장려하는 글이 때를 맞춰 지면을 메우기도 한다.

졸업시기, IMF시대에 한탄이 가장 크게 들리는 곳은 역시 마지막 학생시절을 보내는 대학가이다. 예년 같으면 축하의 말을 들으며 나름의 아쉬움과 설렘으로 화답을 전하고 있었겠으나 올해 졸업생들이 받는 졸업인사는 사뭇 다르다.

“이번에 졸업이지? 그대 직장은 잡았어? 하긴 경제가 불황이니 일자리가 그리 쉽게 있겠어. 조금 있으면 경기도 좀 풀려졌지. 설마 산 입에 거미줄 치겠어?”

국민운리학과 한 졸업생은 졸업의 의미를 묻는 기자에게 어른들께 듣는 졸업인사가 대부분 이정도라며 졸업의 의미를 쉽게 떠올릴 수 없다고 무뎠던 얼굴로 답했다.

당장 졸업의 설렘과 기쁨보다는 생계에 대한 막막함 속에서 직장을 찾아다니거나 아예 도서관에서 공부에 전념하는 졸업생들이 태반이며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예년에 비해 부쩍 늘었다는 보고도 있다. IMF시대에 졸업은 기쁨을 주는 사건이라기 보다는 하고 싶지 않은 절망의 시작점으로 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문학부 김항배 교수는 용기를 잃지 말고 나름의 졸업의 의미를 찾으라고 조언한다.

“물론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요. 그러나 아주 평범한 말로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잖습니까. 졸업이라는 것은 중요한 고비로 사회로 나가는 시기의 문턱을 의미하는데 그 문턱에서 위기에 대한 절망감으로 졸업의 참의미를 무시한 채 좌절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존중되어야 하는 법칙이 있듯 졸업 또한 사람의 일생에서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더라도 축하받고 의미를 가져야 하는 중요한 기점이라는 것이다. 사실 대학생활 4년은 한순간에 흘러버리기에 너무 많은 일들을 담고 있다. 성인이 되는 기점으로 사회나 세상을 향한 시각이 고정되는 시기이며 학문에 있어서는 다양한 전문화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간이다. 한편으로는 사회에 대한 준비작업을 쌓는 시간이기도 하다. 대학하면 흔히 떠오르는 불뉘는 도서관, 동아리, 대동제, 아르바이트 같은 모임이나 행사, 사회경험의 기회에서 개개인은 많은 생각을 갖고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년의 대학생활은 단순히 졸업을 향한 여정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나름의 의미가 있으며 그 결과물로 얻은 졸업이라는 마지막 도착점은 4년을 열심히 보낸자에게 보내는 하나의 찬사이기도 같은 것이다.

“청춘의 발판을 지나고 그곳은 태어난 무명무명으로 굶이치기 애인도 나만의 방도 없었지만 시간은 많다고 느꼈지. 여러 풀잎이 바위에 들어올릴 듯한 시절 열렬하고 어리석고 심각한 청춘시절” 신현필의 ‘슬럼프에 빠진 그녀의 독백’을 인용해 자신의 대학생활을 회고하는 국문과 한 졸업생의 말처럼 청춘으로 포기되는 대학시절을 마쳤다면 졸업은 생활고와 경제난 속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축하받아야 할 축전(祝典)이다. 시대상황으로 졸업의 의미를 퇴색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졸업자에게 축하의 말을 아껴서도 안 될 것이다. 최 진 기자

짧은 소식

학교 밖에서

‘신윤복’전

1월 ‘신윤복의 달’을 맞아 해원 신윤복의 작품세계를 조망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이 전시회에는 장르별 명품 20여점이 소개된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풍속화가인 해원 신윤복의 화화세계를 음미할 수 있다.

3월 1일까지
국립중앙 박물관에서 398-500

창작마음 단막극전

창작마음 단막극의 발전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단막극제가 열린다. 이 행사는 창작극단을 고집해온 극단 창작마음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97연극기자들이 뽑은 연극상에 당선된 세편이 공연된다.

오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동숭아트센터 소극장에서 562-3043

한국의 얼굴전

신라시대 6세 기림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간여행을 통해 우리 민족의 다양한 얼굴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

현대구상조각으로 표현된 한 국인의 얼굴에는 작가의 독특한 조형언어가 살아있다.

24일까지 인사동 기니아트센터에서
734-1020 일장로 2전원

호암청년논문상 공모

호암재단(이 사장=이현재)이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1회 호암청년 논문상을 현상 공모한다.

‘미래 성숙 사회에서의 인간관리와 인간의무’ 외 2개의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는 삼성그룹 호암 이병철선생의 뜻을 계승하여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는 데 뜻을 두고 있다.

수상작 총 10편을 선발하여 총 3천 7백만원의 상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3월 31일까지. 259-7894-7

졸업생이 재학생에게 띄운 편지

“대학생활 4년은 사람을 만나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단련시키는 기회의 시간이었다”

나는 남들이 다해보는 휴학과 복학을 해 본적이 없이 그대로 4년을 이 학교에서 다녔다. 그래서 중간에 나의 대학 생활을 돌아보고 재충전을 할 기회가 없었음을 아쉬워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한 생활도 계획성 있게 생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자.

이제는 학교를 가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새롭다. 다항관에서 점심을 먹어도 이것이 나의 학교에서의 마지막 식사가 아닐까, 팔정도들 지나게 되면 이제 또 언제쯤 팔정도들 거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학교의 체취를 더 불리고 가려고 인간됨을 쓰게 되며 특별히 할 일이 없는 날이든지, 만날 사람이 없는 날이면 학교에 나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 한다.

지난 4년간 ‘무엇을 했는가’, 혹은 ‘무엇을 이루었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약간 곤혹스럽다. 1학년 대학에 대한 실망감에 빠져, 2학년때는 연애에 빠져, 3학년때

는 조직 생활에 얽매어, 4학년때는 4학년이라는 부담감으로 세월을 보냈다. 학문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도 아니어서 4년간 건진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없다’라는 말을 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4년이 그렇게 쓸데없이 흘러간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그 기간을 통하여 나는 사회에 나가서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갈고 닦아졌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대하는 동안 성격과 가치관이 현실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느끼게 된다.

대학생활의 핵심은 ‘인간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1학년 때부터 선배들과의 술자리에서 혹은 동아리에서, 아르바이트나 조직 생활 중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 때까지 살았던 세계가 너무 좁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이로써 나는 그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회로 나아갈 때 나의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이라

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굳이 후배님들에게 충고를 하려면 대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 어떤 사람이라도 좋다 -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라고 권하고 싶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대학 학부에서 이를 수 있는 학문적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단련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에 파묻혀 사는 ‘포레키’의 생활을 못해본 것이 조금 후회스럽다.

그렇게 4년간을 많은 경험을 해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무엇이 나에게 어울리는 일이며, 어디서 나를 필요로 하는가. 이런 물음을 떠올리다 보면 거기에 맞게 자신이 준비해야 할 것도 떠오르게 된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이러면 그는 한 사람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선가 정말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뜻일 것이다.

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홀로 사회에 나가더라도 어딘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 그 곳에서 또다른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머칠 하면 졸업식이고, 그것이 형식일지라도 나와 많은 선배들은 이 학교를 떠난다. 하지만 그 중에는 학교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성공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패하여 학교밖에 뺏겼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재학생들은 가족과 같이 그들을 환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4년간 이 곳을 다닌, 혹은 다닐 동국인들이기 때문이다.

이희남
생자대 생명자원경제 4

비아리

‘아이 엠 에프’

▲난세에 영웅이 나타난다고 한다. 영웅이 있으면 소인도 있기 나름이며 지금의 영웅이 국민이라면 소인은 다름아닌 정치권이다. 요즘 IMF에 대한 저마다 이색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 말 그대로는 국제통화기금이지만 I'm Fighting - 즉 나는 싸우고 있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국민들은 IMF 시대를 맞이 하여 저마다 각자 최선을 다하며 이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의환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한 ‘금모으기’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아가들의 돌잔치부터 저마다 사연들이 있는 것들을 나라를 위해 장롱 속의 먼지를 털어 가지고 나온다. 또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하나라도’ 운동을 전개해서 짐작을 뭉스실려는 일반 시민들도 있다.

크고 작은 기업들의 도산과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정리해고 및 인력회복 등으로 인해 어수선한 나라 분위기 속에서 정작 힘들고 고단한 것도 그들이다.

서민은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다. 서민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쓰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업뿐 아니라 정치권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개혁도 요구 되고 있는 지금.

머칠전 열린 임시 국회는 여러 가지

의결해야하는 일들이 많은데도 제대로된 회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 위기의 책임은 모두 정치권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인들의 복지부동과 정경유착이 이뤄낸 작품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권은 안일한 자세로 국회를 파행적으로 이끌고 있다.

▲과거 국제보상 운동등 어려운 국난이

있을때 마다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 앞장서 왔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타당공론만 하거나 책임회피에 급급할 따름이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I'm Fighting’ 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우리 정치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I'm F’라고. 이태훈 취재부장